

#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 1. 일상 생활 중에

### 점검하고

집 근처 배수시설 등을  
점검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  
센터에 신고하세요



## 2. 산사태 발생 우려 시

### 대비하고

산사태 정보시스템(PC),  
'스마트산림재난' 앱(스마트폰)  
또는 방송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 3. 산사태 발생 시

### 대피하고

산사태 방향과 멀어지는  
방향, 가장 안전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 4. 산사태 발생 후

### 신고하세요

매몰자나 부상자가 있을 경우  
소방서(119)에 신고하세요



산사태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산사태국민행동요령 관련 자세한 정보는  
산사태정보시스템,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하세요.

# Contents

vol.591\_2025. August



## 아름다운 동행

### 04 함께하는 길

영화 속의 교도소, 영화가 만드는 교도관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 08 생각의 창

‘교도소’보다는 대체집행 어떨까요?  
할부도 된대요  
김지훈 교정본부 빅데이터팀 교정관

### 14 우리는 한마음

멈추지 않고 성장하며  
함께하는 삶을 찾아가다  
인터뷰 | 김성봉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목포지회 회원

## 교정 이야기

### 18 교정 기관

극한의 시간 위에 씌든 변화의 씨앗  
‘새로운 시작’을 향한 힘찬 발돋움  
부산교도소

### 24 교정과 사람들

맞춤형 심리치료 및 중독재활로  
‘회복 중심 교정’의 새길을 열다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

## 교정 아카이브

### 28 교정 포커스

미국 교정기관 ADX, FCC 방문기  
이승진 인천구치소 분류심사와 교감

### 50 교정 논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상)  
김도균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 64 교정 리포트

이상동기 범죄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이용주 화신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 교정 뉴스

### 86 교정본부 NEWS

### 88 교정기관 NEWS

### 95 모범 공무원

### 96 독자마당



### COVER STORY

겉으로 빛나는 화려함보다, 조용히 쌓여 온 시간 속의 일상에서야말로 오래도록 지속되는 ‘충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정의 현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루와 조용한 헌신 속에서, 한 사람의 회복과 공동체의 변화는 조금씩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은, 결국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영’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이훈연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발행일 2025년 8월 6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http://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https://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http://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https://www.youtube.com/@kcs_TV) 인스타그램 [instagram/korea\\_correctional\\_service/](https://www.instagram.com/korea_correctional_service/)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화 속의 교도소, 영화가 만드는 교도관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영화를 일러 ‘당대의 이데올로기가 함축되어 있는 문화 텍스트’이자, 또한 그 시대 사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의견에 동의하면 서도, 유독 한국 영화의 카메라 앵글에 그려지는 교도소와 교도관상을 마주하노 라면 금세 눈살이 찌푸러지고 고개를 가로젓게 됨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이해의 작은 여백도 허용하기 어려우리만큼 한국 영화 속의 교도관은 하나같이 코미디언처럼 엉뚱하고 무기력하거나, 아니 면 선악 구도를 걸וות만 바꾼 채 악의 상징성으로 노출되기 일췌인지라, 관객으 로서의 교도관들을 늘상 우울하게 만들어 버리지요. 영화란 관객의 사고를 자극 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 시각을 눈뜨게 하고 또 변화시키 는 촉매로 작용하는 것일진대,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 한 영화 한두 편을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경우 꾸겨진 교도관상만 나열하고 비추는 작금의 카메라 앵글의 양태는 실로 짜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회 일반에 던져지고 끼칠 메시지를 생각하면 정녕 아쉬운 마음일 따름입니다.

대저 영화를 찾는 관객들은 황당무계하거나 기상천외한 사건이 아니라 양질의 시간을 찾아 영화관에 간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명한 영화감독 ‘안드레 이 타르코프스키’ 왓, 인간은 보통 잃어버린 시간, 놓쳐 버린 시간, 또는 아직 성 취하지 못한 시간 때문에 영화관에 간다고 했습니다. 영화가 어설픈 이야기나 도 식화된 담론에 천착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내면과 감정, 그리고 미학적 리얼리티 를 깊이 있게 그리되 무엇보다 정신문화의 올바른 좌표를 쫓아가고, 또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영화적 토양을 내포하고 있어야 할 이유와 의무를 암시해 주는 어 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유력한 수단이요 가장 대중적인 오락의 주 체적 지위를 향유함에 따라, 영화의 작품성과 상업성이 결코 양립 불가능한 개 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상업적 이윤 추구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영화 산업의 추세임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영 화 예술적 가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부류들이 함부 로 그네들의 삼류 영상물에 교도소를, 교도관을 그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광복절 특사’류의 덕지덕지 꼬질꼬질 발라 놓은 스토리라인과 캐릭터 의 영화로 하여금 교도관을 희화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서 교도 소를 등장시키는 대부분의 한국 영화는 내부자만 알 수 있는 용어 하나도 캐치 하지 못하고 주변부를 겹돌기만 하는 것인지, 행여 출소자들의 편견이 여과 없 이 전달되었다손 치더라도 카메라의 앞과 뒤 모습이 어찌나 그리 판이하고 억지 로 꿰맞춘 듯한 풍경으로만 가득한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였으면 본부장으로 재임할 때 아직 문도 열지 아니한 교정시설 하 나를 통째 영화촬영지로 개방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모 영화사에서 교도관이 주인공인 ‘집행자’라는 영화를 만든다며 시설물 이용을 부탁해 왔기에, 시나리오 를 검토한 후 별 문제가 없어 개청 준비 중이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용을 허 가해 주었습니다. 그간에 영화에 그려져 관객들에게 각인된 교정시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이었던가를, 차제에 대한민국의 교정시설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 는가를 보여주고 깨우쳐 주자는 취지에서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외화의 경우 ‘쇼생크 탈출’처럼 공허한 이분법을 기치로 극단의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화에 있어 교도관은 선과 악의 치우침이 없이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하기야 쇼생크 탈출 또한 서로 다른 가치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감옥의 문화와 그 감옥이 재소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갈구하고 덧나게 하는지 살살이 파헤치고 있으나, 거기에서의 교도관상이란 1946년의 미국, 그 시대 사회상의 평범성에 기준하였을 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지극히 객관화된 구도 속의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화의 경우 그 어느 것이라도 최소한 서사적 힘, 즉 영상의 리얼리티 포맷이 장착되어 유치 찬란한 꼴불견이나 헛웃음을 불러오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강점을 지니고 관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드 보일드 액션 느와르인 ‘퍼블릭 에너미’는 죄수와 교도관을 그림에 있어 옳고 그름에 전혀 포박되지 않고 카메라를 비춥니다. 흠뻑리는 눈을 맞으며 이열 종대로 절도 있게 출역장으로 향하는 재소자들의 발걸음과 장충을 맨 감독 교도관의 발걸음 모두가 구호에 맞춘 듯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화면은 온통 푸른색 톤으로 표현되어 냉기를 뿜어낼’ 따름입니다. 이윽고 작업장에서 모의 총기로 교도관을 위협하고 정문을 벗어나 탈출하는 재소자들, 그들을 향해 총을 쏘는 교도관, 쓰러지는 자, 도주하는 차량 모두가 허무하리만치 냉소적이고 담담하게 그려집니다. 이 영화의 컬러 화면은 온통 흑백보다 더 창백할 뿐입니다. 어쩔 ‘선과 악은 멀리 떨어진 대척점에 위치한 게 아니라 서로 뺨을 맞댄 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느낌마저 가지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은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볼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사형수와 감독교도관의 믿음과 선의를 그린 톰 행크스 주연의 ‘그린 마일’은 갇히고 지키는 자의 경계를 부수고 그들 서로가 빚어내는 처연하고 안쓰러운 정서가 관객들의 마음을, 영혼의 빈터를 축축하게 적셔주는, 교정 영화의 수작(秀作)이라 할만합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복도, 초록빛 리놀륨이 깔려 그린마일이라 불리던 그 복도를 따라 걷는 생의 마지막 점멸의 시간에 이르도록, 교도관과 재소자의 서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눈빛과 손길이 마냥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촘촘히 박힌 감옥의 호흡을 응시하는 시선이 그야말로 날카롭고 진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각설하고, 교도소를 찾는 한국 영화의 영상도 어설픈 심판자가 아니라 동료와 공범의 앵글로 가까이 다가선다면, 지키고 보여줄 리얼리티적 풍경 하나쯤은 쉽게 건져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하자면 우선 영화의 시놉시스 구성 단계에서부터 극적 효과만을 위한, 과장되거나 편향된 시선과 자세를 탈피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재소자는 폭력적이라는 선입감도 버려야 합니다.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폭력범이 아니라 재산범 등 비폭력적 범행으로 수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회색빛 군상들에 대한 불필요한 미화와 조명 또한 금물입니다. 교정시설에는 선량한 재소자가 있을지언정 선량한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도관은 모두가 폭력·권위적이거나, 냉혈·무관심하거나, 부패·타락해 있다는 상투적인 설정도 틀렸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교도관, 즉 법 집행과 재소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가야 하는, 힘든 직업적 고뇌를 이겨 나가는 실상을 조명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교도관과 재소자의 적대적인 관계 및 갈등 구조를 영화적 매력인 양 과도하게 치중하여 앵글을 맞추고는, 관객의 호기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애정과 증오는 보통 함께 다닌다고 합니다.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적대가 형성되는 게 보통이지만 그들 사이에 사랑이 발생하는 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교도관과 재소자의 사이도 그러할 것입니다. 카메라의 앵글이 될수록 적대보다는 사랑과 애정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풍경들을 그려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이 단순히 삶의 영역을 제한하는 장벽이 아니라 삶을 재도약시킬 기회이자 도전의 자양분으로 그려지고, 그 스토리의 궤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승리의 포효가 관객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쩔 그런 시각과 관점 전환이야말로 교도소를 묘사하는 영화적 상상력의 탄생에 깊은 자궁으로 역할하여, 한국 영화의 지평을 넓혀주기도 할 것입니다.



# ‘교도소’보다는 — 대체집행 어떨까요? 할부도 된대요



김지훈  
교정본부 빅데이터팀 교정관

## 타는 듯한 폭염에... 3년전 기록 갈아치웠다

한국경제TV(2025. 7. 8.)

## 올해 온열질환자 1천명 육박...역대급 폭염에 작년의 2배로 급증

연합뉴스(2025. 7. 8.)

### 올라가는 기온만큼 깊어지는 고민

올여름은 폭염이 유난히 길고 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열질환 등 폭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면 교도관이면 누구나 고민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수용거실 온도를 어떻게 하면 1℃라도 낮출 수 있을까”하는 문제이다.

이는 수용자의 건강 유지 및 거실 내 폭행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여름은 멈출 줄 모르는 과밀화와 길어진 폭염으로 교도관의 고민은 깊기만 하다.

### 1개 기관 과밀 정도가 교정시설 2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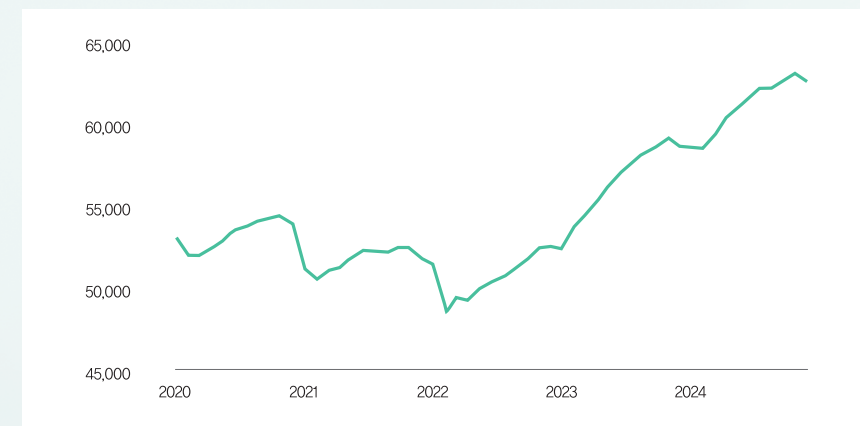
한여름 폭폭 찌는 무더위와 열대야도 걱정인데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늘어만 가니 거실 내 체감온도는 떨어질 줄 모른다.

교정시설 수용인원은 2013년 104.9%를 시작으로 2024년 122.1%까지 상승하였고, 2024년 기준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전체 29.1%를 차지하고 있다.<sup>1)</sup>

현재 부산구치소는 수용률이 무려 154.6%로 수용정원 1,510명에 2,300명을 넘게 수용하고 있으며(2025. 7.) 이는 정원대비 약 800명을 초과 수용한 것으로 강릉(교)나 영월(교) 규모의 교정시설 2개를 더 확충해야 해소 가능한 수준이다.

〈그림 1〉 최근 5년간 월별 교정시설 수용인원

(단위: 명)



### 과밀해소를 위한 노력과 노력수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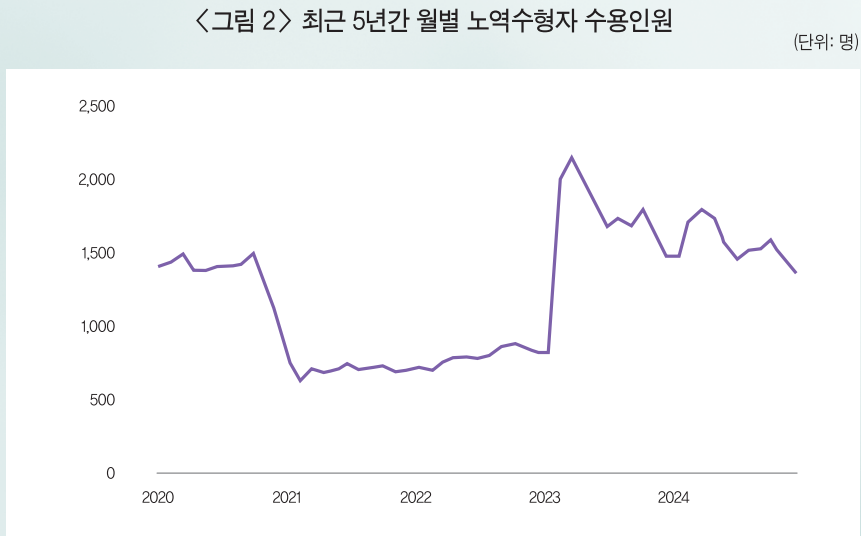
과밀수용은 수형자 교정교화와 인권보장의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교정본부에서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교정시설 조성, 심사기준 완화를 통한 가석방 확대 등 과밀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이다.

1) 2025 교정통계연보(121~122면)





교정시설 과밀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노역수형자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2020년 12월 검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2023년 3월 다시 정상화<sup>2)</sup>되었고, 이에 교정시설 노역수형자도 2021년 3월 612명에서 2023년 4월 2,169명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다소 진정되어 현재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00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 아시아경제 「마스크 해제에 벌금 미납자들 긴장... 검찰, 9만명 재수배」(2023.3.23.)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단기자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 수용시설 과밀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자유형의 대체 방안으로 대두되었지만<sup>3)</sup>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수형자는 오히려 교정시설 과밀화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1일 평균 노역수형자는 1,562명으로 전체 수용인원 61,366명 중 2.5%를 차지하고 있고, 죄명별로는 업무방해(22.7%), 사기(17.5%), 폭력·상해(8.6%) 순이었다. 노역 일수로는 90일 미만 이 약 70%로 대부분 3개월 이내 노역을 마치고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이를 1일 10만 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벌금 총액은 900만 원 이하로 노역수형자 상당수가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보여주고 있다.

### 최근 5년 사망 노역수형자 21명...벌금형 집유 등 대책 강화(종합)

뉴스1(2021. 3. 11.)

### 잇단 노역 수형자 사망 사고에...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적극 구형할 것”

이데일리(2021. 3. 11.)

또한 노역수형자 대부분은 형집행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지만 노숙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채 입소하고,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교정시설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우함에도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법무부에서는 2020. 10.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TF」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최근 5년간 수용인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2.8%인데 비해, 병사자 중 노역수형자의 비율은 14.4%로 매우 높게 났다.<sup>5)</sup> 이렇듯 노역수형자는 일반수용자들에 비해 세심한

3) 「교정시설 과밀수용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신용해, 경인문화사, 2025, 228면)

4) 2025 교정통계연보(92면, 170면)

5)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보도자료, 2020.10.7.)



관찰이 필요하고 이는 교도관의 업무부담과 의료비 등 수용비용의 증가로 연결되며 심리치료, 교화프로그램 등 교정교화에 힘써야 할 교정역량이 노역수형자 건강관리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벌금 미납자가 노역장 유치집행을 위해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작업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대부분 본인의 수용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출소하게 되어 노역장 유치집행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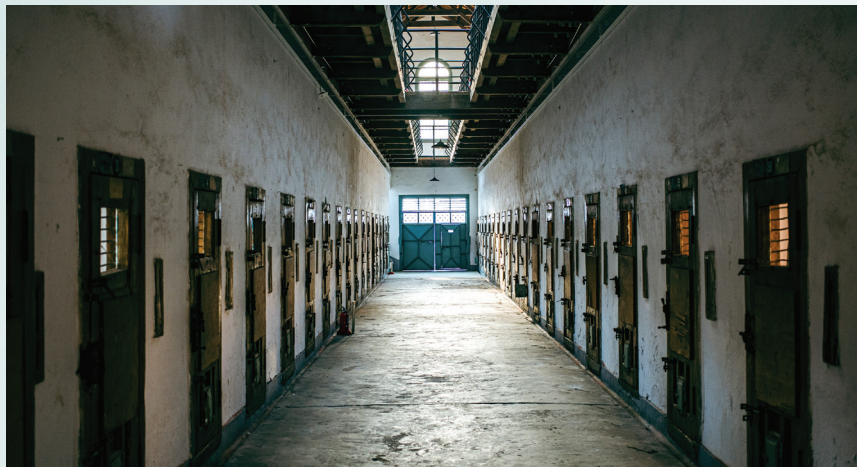
#### 취약계층은 구금보다 대체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9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고, 벌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분납·납부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노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역장유치로 인한 범죄학습,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6)</sup>

### 끊이지 않는 벌금 미납자...노역장 유치도 급증 추세 사회봉사대체 등 관련 제도 모르는 미납자 많아

이데일리(2025. 3. 14.)



6) 「교정시설 과밀수용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대책」(신용해, 경인문화사, 237면)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거나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몰라 신청 시기를 놓쳐 구금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지난 2021년 3월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TF」에서는 노역수형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단계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중 특히 검찰 구형 시 건강상태, 벌금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적극 고려, 노역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벌금의 분납이나 납부 연기 방안은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역수형자 발생 총량 자체를 줄여 교정시설 과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 최고 수용률이 150%가 넘는 현재 상황에서 더욱 힘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집행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벌금 납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게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부득이 노역장유치를 집행하는 경우 신청 시기를 놓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다시 한번 신청 기회를 주는 방법도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와 사회 취약계층, 생계형 사범의 조속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노역수형자 감소로 이어져 교정시설 과밀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멈추지 않고 성장하며 함께하는 삶을 찾아가다

김성봉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목포지회 회원

## INTERVIEW

“은퇴란 끝이 아니라, 마음속 열정이 사라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 70대의 그는 여전히 배우고자 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으로 남을 돕고 싶어 했고, 덕분에 그가 속한 회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벽을 세우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으며, 회의적이던 젊은 대표의 태도 또한 어느새 ‘호의’로 바뀌었다. 영화 <인턴> 속 ‘벤’의 이야기다. 그리고 어쩌면 대한민국교정동우회 목포지회(이하 목포지회) 김성봉 회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 멈춤 없는 마음, ‘성장’ 향한 걸음

‘성공’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반짝인다. 하지만 어떤 성공은 정점에서 멈추고, 어떤 성공은 실 패로 돌아서기도 한다. 길 초입에서는 박수와 찬사를 듣더라도, 끝내는 덩그러니 홀로 남겨 질 수 있다. 하지만 ‘성장’은 다르다. 끝이 없다. ‘나’를 갈고닦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관계를 만들고 공존하는 것, 성장의 길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함께한다. <인턴>의 벤이 바로 그랬다. 은퇴 후에도 기꺼이 다른 삶을 배우고자 했고, 70대의 나이에 도 젊은 동료들과 나란히 일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로 인해 바쁘기만 했던 사무실에는 자연스레 다정함과 여유가 스며들었으며, 경계 하던 시선 속에도 어느새 존중과 신뢰가 피어났다. 성공은 지나갔을지언정, 깊어지고 계속되는 삶 가운데 벤의 성장은 늘 ‘현재진행형’이었다. 목포지회의 김 회원 역시 그랬다. 고희(古稀)를 훌쩍 넘긴 지금도 세상 한가운데서 배우고 나누며, 또 한 번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9 to 6’의 패턴을 소중히 여기며, 여전히 성장의 길을 걷는 그에게서는 ‘멈추지 않는 마음’이 충분히 보이는 듯 했다. “2009년부터 12년간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에서 근무한 뒤 최근까지 고등학교에서 보안관으로 일했어요. 계약이 끝날 즈음 고용노동부

에서 다시 출근할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더군요. 못할 이유가 없죠. 서류 정리부터 현장 관리까지 어려운 일은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새벽에 나가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려 출근길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제 몫이고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교정 현장에서의 경험 덕분에 기꺼이 하게 되네요.” 육신의 건강이 받쳐주는 물론, 삶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 삶이 진작부터 ‘성장’을 향하며 ‘공존’으로 익어왔기 때문인지 모른다.

### 삶의 밑줄, 교정人으로서의 첫 문장

김 회원은 전남 진도의 작은 농가에서 나고 자랐다고 한다. 길이 좋지 않았고,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없어 물으로 나가려면 배를 타야만 하는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어린 날이 무겁진 않았다. 초등학교 댄 드럼통을 가로로 잘라 만든 굴렁쇠의 속도에 맞춰 학교길을 달릴 만큼 유쾌했고, 중학교를 졸업하자 ‘땅을 팔아’ 목포에 있는 상업고등학교로의 진학 길을 열어줄 만큼 부모님은 미더웠다. 돌아보면 애초부터 ‘성장 지향적인’ 환경이었다는 게 그의 고백이다. 그래서 인지 그의 삶도 늘 차근차근 이어져 온 듯하다.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1974년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1975년



12월 1일 첫 발령을 받았죠. 처음엔 낯설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굴렁쇠를 굴리며 뛰던 것이 체력이 됐을 거예요. 그 체력을 기반 삼아 수용자 관리부터 작업과 운영, 직원 교육까지 쉼 없이 뛰어다니며 꽤 찬 현역 시절을 보냈습니다.”

김 회원은 목포교도소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보안과에서 수용자 관리 업무를 맡아 교정 현장의 기본을 익힌 후에는 작업과에서 양재·목공·인쇄 분야의 직업훈련과 기능교육을 총괄했다. 특히 양재공장을 담당하면서는 낡은 재봉틀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목포해양대학교 학생복, 버스 회사 기사와 안내양의 유니폼, 은행의 근무복 등 대규모 납품 계약을 성공적으로 따냈다. 이러한 활약은 자연히 생산성으로 이어져, 연간 3,000만 원대에 머물던 교도작업 세입이 1억 원 이상으로 꺾중 뛰기도 했다.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수주 활동에 매달렸죠. 공정을 맞추려면 6개월 넘게 잔업을 이어가기도 했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헌신이 지금까지의 제 삶을 떠받치는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 교정 현장에 심은 나무, 삶의 현장에 지침 새겨

특별한 기억을 묻자, 김 회원은 1990년대 목포교도소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헌수(獻樹) 운동’을 전개, 전 직원이 각 과별로 분담해 나무를 심었다고.

“교도소 주변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싶었어요. 언젠가 퇴임 후 다시 이곳을 찾았을 때, 우리가 손수 심은 나무들이 자라 큰 그늘을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멋진가를 상상했죠. 전 직원

이 뜻을 모아 한 구좌에 5,000원씩 걷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구입해 청사 앞 언덕과 철조망 주변에 심었어요. 지금도 봄이면 연분홍 벚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물드는 풍경이 눈에 선해요.”

장진의 영동 농장을 수차례 오가며 나무를 직접 심어 나르기도 했다. 당시엔 수고로웠어도, 계절마다 각각의 색으로 물드는 교정시설을 생각하면 그렇게 뿌듯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정시설을 찾은 이들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 쉬어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그에게는 깊은 위안이라고. 이 모든 기억과 감정이, 김 회원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여전히 주효한 나침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9 to 6’ 루틴 속 빛나는 교정인의 삶

목표교도소에서 경비교도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는 전 대원의 태권도 유단화를 꿈꿨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대원에게 태권도 단증 하나씩은 꼭 안겨 주자”는 목표 아래, 월·수·금요일마다 퇴근 후면 그는 도복을 입었다.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똑같은 시간과 강도로 훈련에 임했던 것. “집에 돌아가면 밤 9시를 훌쩍 넘기기 일쑤였죠. 피곤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래도 대원들에게 삶의 태도와 정신을 전하고 싶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의를 배우고 용기를 기르며 적극적인 자세를 키우는 ‘수련’의 과정이거든요. 협동과 봉사, 자신감과 절제까지도 함께 배울 수 있죠. 훈련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단련된 몸과 단단한 마음을 갖추고 사회에 나가 도움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대원들은 체력과 정신



력은 물론 자신감을 얻었으며, 단증 역시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에 2개월마다 진행한 승급 심사는 어느덧 김 회원이 가장 골몰이는 일과가 됐고, 시간이 갈수록 취득 단수와 명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2006년 11월 국방부 및 2군사령부 태권도 심사관들이 목포교도소를 찾아 승단 심사를 진행한 적 있어요. 그날 총 18명(1·2·3단, 각 6·2·1명)의 유단자가 탄생했죠. 경비교도대원들이 국기원 정식 단증을 취득한 것도 대한민국 경비교도대 창설 이래 최초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어떤 일이든, 일단 맡았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김 회원은 현재 전남육상연맹·목포육상연맹·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및 전라남도체육회 종합체육대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폭넓은 대회 활동과 일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교우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함은 물론, 태권도 9단 승단을 목표로 맹훈련 중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퇴직 이후 투포환, 마라톤 등 또 다른 종목을 만나 생활체육인으로 활약하고 있다는 김 회원. 스스로를 교정동우회 회원이라 자부할 수 있기에 그는 오늘도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뜨겁게 하루를 채워나간다.



# 국절의 시간 위에 싹튼 변화의 씨앗 ‘새로운 시작’을 향한 힘찬 발돋움

부산교도소

부산교도소의 공식 개청은 1947년이다.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 ‘근무가 힘든 기관’으로 기억되는 이곳, 부산교도소는 그만큼 한국 교정행정의 굴곡과 맞닿아 ‘국절이 많은’ 현장이기도 하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 김해농장에서 부산교도소로, 78년의 서사

부산교도소의 곡절은 일제강점기 전시 동원 체제 아래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침략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일본은 부산교도소 재소자들을 전쟁 수행의 인력 자원으로 활용했다. 당시 국가총동원령에 따라 400여 명의 재소자들은 '보국대'라는 이름으로 김해비행장(현 김해국제공항) 정비와 군수 물자 생산 등 각종 노역에 동원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머물며 생활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이 자연스레 부산교도소의 부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1947년에는 미군정 산하 신한공사와 약 3만 6,000평 규모의 토지 임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산형무소 김해농장'이 공식 출범했으며, 1963년 대통령령 제 1476호 「교도소 직제」에 따라 김해교도소 신설이 확정되면서 독립 교정시설로의 전환 계획이 본격 추진

됐다. 초기 예정지는 경남 김해시 어방동이었으나, 1966년 대통령령 제2698호에 따라 대저면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그리고 5년 뒤인 1971년 3월 25일, 현재의 자리에 '김해교도소'가 개청하며 드디어 독립 교정시설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는 것이 『부산교도소 50년사』의 내용이다.<sup>1)</sup> 이후 1978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해군 대저읍이 부산으로 편입되었고, 1987년 김해교도소라는 이름은 마침내 부산교도소로 개칭되기 이른다.

현재 부산교도소는 약 4만 평 부지에 12개의 수용동, 18개의 작업장, 8개의 운영지원 시설, 2개의 직업훈련장, 4개의 교육실, 대강당, 의무교도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곡절을 겪는 동안 이름이 바뀌고 시대도 변했지만, 이 공간에 축적된 시간과 경험은 교정행정의 현장 속에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 가족사랑캠프 등 교정의 새로운 기준 제시

교정의 목적은 단순한 수용을 넘어선다. 부산교도소는 일찍부터 재범 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금은 전국 교정 기관으로 확장된 '가족사랑캠프'다. 이는 부산교도소에서 시범실시된 후 전국 교정 기관으로 확산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현재 사회복귀와 주관으로 23개 단체와 협력하는 부산교도소에서는 약 300명의 수용자들이 신부, 목사, 교정위원 등과 유대 관계를 맺고 종교 상담과 교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991년에는 이발기능사와 양복기능사 과정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마약·성폭력·알코올 등 특정 사범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여기에 허그일자리지원,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더

해 출소 후 자립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교도작업 또한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다. 2015년 신설한 '희망CNC작업장'은 단순 노역을 넘어 고급 기술 습득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듬해에는 교정기관 최초로 ISO9001(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군수품 부품인 볼트, 너트, 샤프트 등을 생산하며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수용자 처우도 전문화했다. 집중인성교육 심화과정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운영돼 온 부산교도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범죄 대응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교정기관 중 최초로 마약사범을 위한 중독재활수용동을 설치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상담실 2곳과 전담 교육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중독재활과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지속해 가는 중이다.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2067300051>



## 지역과 함께 뛰어낸 회복의 고리

부산교도소의 교정행정은 지역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더욱 체계화돼 왔다. 부산교도소는 일찍이 수용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출소 이후에도 이어지도록 중독재활 전문기관인 리본하우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마약퇴치운동본부·국립부곡병원 등과 구축한 협력체계 또한 탄탄하다. 회복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재접속까지 아우르는, 교정의 역할 확장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부산교도소의 '함께하는 교정'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서도 실현된다. 지난 2005년부터 중리이구마울과 자매결연을 맺고 명절마다 독거노인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어려운 이웃 4가정을 정기 방문해 생활 상담 및 지원을 이어간다. 또 2012년에는 관내 낙동중학교와 장학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부산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자발적 성금을 모아,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역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2024년 2월에는 도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산개인택시운송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했다. 물론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해 리본하우스와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중독재활 자원과의 연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기도 했다.

부산교도소의 이러한 노력은 교정행정이 단순한 수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과,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의 확장'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전문성과 열정으로 미래를 세우다

부산교도소 교정행정의 최전선에는 360여 명의 직원들이 있다. 부산교도소에서는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의료과 등 7개 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기관 운영을 책임진다.



화인 진흥 갤러리



고강도의 업무가 일상인 만큼 부산교도소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유대감 형성에 힘쓴다. 약 300명의 직원들이 축구·야구·골프 등 17개 동호회를 통해 여가를 즐기며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해에는 법무부 장관기 야구대회와 탁구대회에서 잇따라 준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한다. 1인실 침실 리모델링, 안마의자가 비치된 휴게실, 야외 테라스, 보안과 전용 휴게공간(Tee&Talk)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부산교도소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 5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시설 곳곳이 노후됨에 따라, 법무부와 부산광역시

2023년 11월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구치소·교도소·보호관찰소 등 법무시설의 통합 이전을 권고했다. 다만 부산교도소 직원들은 오늘도 한결같은 책임감으로 현재의 공간을 지켜내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역시 별다른 반대 없이 이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부산교도소가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덕분이다.

결국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그리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헌신, 이 모든 노력으로 부산교도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정'을 구현하고 있었다. 부산교도소는 이렇듯 울타리 안팎 모두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 맞춤형 심리치료 및 중독재활로 '회복 중심 교정'의 새길을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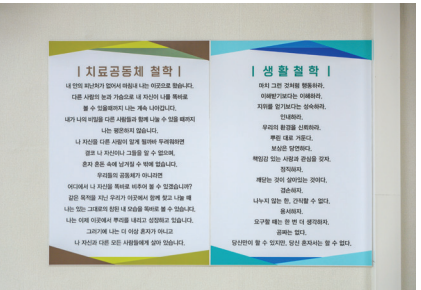
##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

수용자 간 범죄 정보 공유, 반복되는 재범, 끝내 끊지 못한 중독.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마약사범 문제는 단순히 '수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부산교도소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다. 맞춤형 치료와 상담,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흐름을 따라 부산교도소에서는 지금 '회복 중심의 교정' 실험이 한창이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 '수용'에서 '회복'으로의 도전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마약사범은 85% 이상 급증했다. 수용공간은 더 좁아졌고, 수용자 간 범죄 수범 공유 등 2차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부산교도소는 일찌기 수용동 내에 상담실 2곳과 전담 교육실을 신설, 치료 중심의 수용 환경을 구축했다.



현재 마약사범을 위한 전문 수용동을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서 부산교도소가 유일하다. 전문 수용동에서는 전국 54개 교도소에서 선발돼 온 50여 명의 수용자들에게 전담 교육과 심리치료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곳은 단순한 처벌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중독으로부터의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정'이 시작되는 상징적 장소라 할 수 있다. 출소 후에도 그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도록 마약퇴치운동본부, 국립부곡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리본하우스 등과의 협업도 강화한다.<sup>1)</sup>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바로 부산교도소 보안과 소속의 심리치료팀이 있다.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은 단순히 정서적 안정만을 도모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들은 수용자의 심리적 치유와 정신 건강 증진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성폭력·알코올 등 중독이나 특정 문제를 가진 수용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단순히 격리하고 처벌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에서 심리치료의 중요성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에 부산교도소는 심리치료팀을 두고 체계적인 심리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그 회복의 과정을 함께하고 있다. 맞춤형 치료와 상담,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회복의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는 '회복 중심의 교정 실현'에 집중하는 것이다.

### 변화를 이끄는 치유의 힘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은 팀장 포함 9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6명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생애위기상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 전문가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수용자의 삶에 깊이 다가가 상처를 보듬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찾도록 돕기에 여념이 없다.

상담 역시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수용 기간 내내 지속적이고 일관된 개입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로써 정서적 안정은



+ 교정과 사람들

1) <https://tv.naver.com/v/76416179>



물론, 왜곡된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출소 후에 더 필요한 ‘내적인 힘’과 ‘사회 적응 능력’을 길러주려는 것이다. 때문에 심리치료팀은 단순한 ‘치료자’를 넘어, 수용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동기를 얻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회복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의 노력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재범 방지와 성공적 사회복귀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심리치료 과정을 운영하는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은 수용자의 내면 변화를 정밀하게 지원하는, 오늘날 교정행정의 든든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성폭력사범을 위한 심리치료, 마약·알코올 사범의 중독재활치료, 규율 위반자를 위한 교정교육, 우울증에 특화된 치료, 그리고 인지 재구조화를 위한 메타인지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 마약사범 회복의 장(場), 중독재활수용동

전국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중독재활수용동’을 운영하는 부산교도소는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마약사범이 집중 수용된 이곳에서 심리치료팀은 입소부터 출소까지 끊임없는 재활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 부정적 정보 교류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동기강화 상담, 자조모임 훈련, NA 12단계 교육, 개인 심리상담, 치유농업 등 다각도의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히 중독의 뿌리를 들여다보며 수용자 스스로 삶의 변화를 선택하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한다. 특히 치유농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공동체 생활의 긍정적 경험을 쌓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가 하면 ‘회복이음과정’도 눈에 띈다. 이는 재활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자조모임 참여와 단약 유지를 돕는 사후관리 체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공동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출소 이후에도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이러한 체계는 교정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부산교도소의 중독재활수용동은 단순한 처벌 공간을 넘어, 회복과 성장이 공존하는 교정의 미래를 실현하는 상징과도 같다. 제한된 담장 안에서 다시 삶의 주인으로 서려는 이들에게, 이곳은 단절이 아닌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 폐쇄 공간에서 피어나는 회복의 마음

교도소라는 폐쇄적이고 규율 중심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은 일반 상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일반 상담이 내담자의 자발적 동기와 고통 완화를 기반으로 한다면, 교정 상담은 요청 동기, 목적, 접근 방식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차적 이득’ 개념으로 교정 상담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일반 상담은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교정 상담에서는 처우 개선, 상담실 이동, 타 수용자와의 분리 등 현실적 이득을 노린 요청이 많다. 따라서 상담자에게는 내담자의 진정성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세심히 평가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예방적 목적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교정 상담은 수용자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도 자살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적·선제적으로 진행된다. 이때 상담자는 주도권을 갖고 심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교정 상담은 치유를 넘어 교육과 교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대부분의 수용자는 반복된 비행과 어려운 성장 배경으로 인해 감정조절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교정 기관 내 상담자는 수용자들에게 감정 관리, 건강한 관계 형성, 문제 해결 전략 등을 교육하며 일상 속에서의 안정된 변화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교정 상담은 단순한 치유를 넘어 재사회화와 수용 질서 안정까지 아우르는 구조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접근이다. 이러한 연유로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은 전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회복과 교정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 최훈성 보안과장



부산교도소의 심리치료팀은 이곳의 프로그램이 출소 이후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리치료의 효용이 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상담 인력풀은 물론 외부 치료기관, 자조모임 등 다양한 회복 자원을 체계화해 수용자에게 안내하고, 출소 후에도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심리치료팀은 내부 프로그램이 단순 상담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복귀로 귀결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합니다.



# 미국

## —— 교정기관 ADX, FCC 방문기



**이승진**  
인천구치소 분류심사과 교감

### 목차

- I. 들어가며
- II. 미연방 교정국 소개
- III. Florence FCC(Federal Correctional Complex) 소개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직업이 교도관이라고 하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지 종종 질문을 받는다. 이들이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나 또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정말 여자 교도관 1명이 많은 남성 수용자를 관리하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우연한 기회로 미국 콜로라도에 위치한 ADX와 FCC 교정단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를 돌아보며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참고로,미 교정시설 내부는 보안 시설이어서 휴대폰 및 사진기를 소지할 수 없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고, 없는 자료는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로 대체하였다.

## II. 미연방 교정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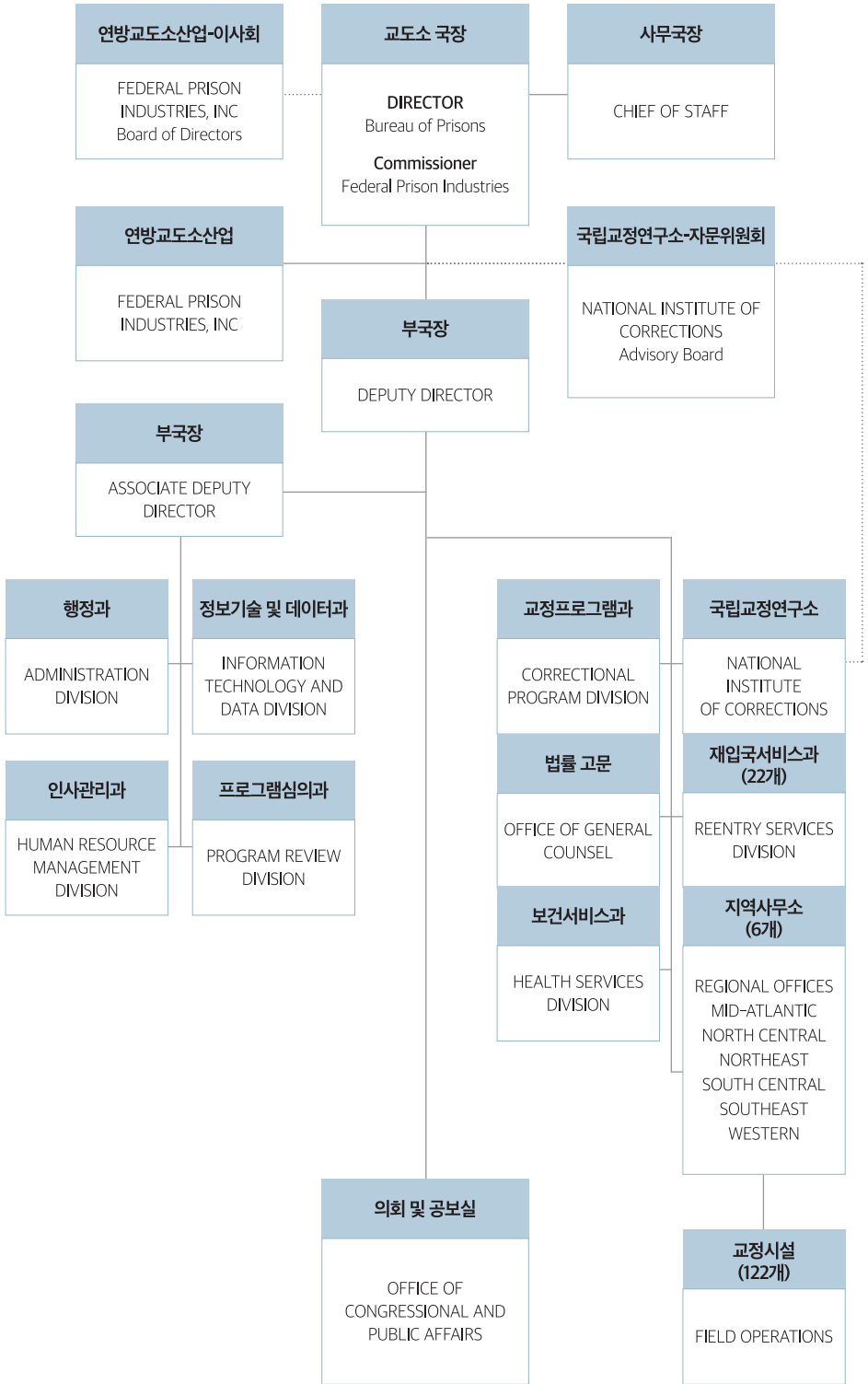
ADX, FCC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미연방 교정국에 대해 소개하자면, 미연방 교정국은 1930년 5월 14일 설립되었고,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청이 아닌 법무부(THE DEPARTMENT OF JUSTICES) 소속이다.

미연방 교정국 조직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본부를 중심으로 6개 지역사무소, 122개의 교정기관, 22개의 재입국 관리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미연방 교정국 조직도



미연방 교정국 본부  
(본부는 미연방주택대출은행 이사회 건물 내 위치)



지역사무소



교정시설(1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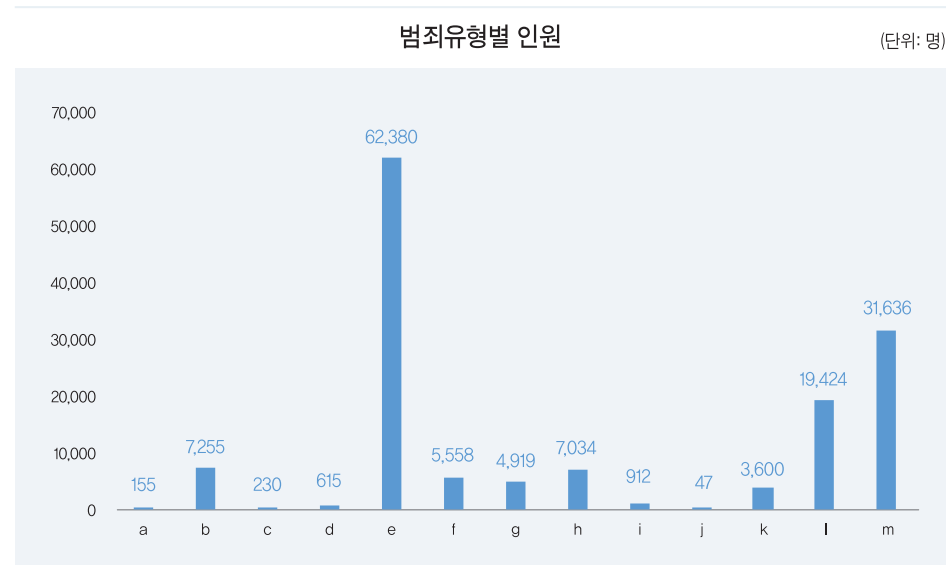
재입소관리사무소(22개)

2. 교정시설 현황

| 구분 | 분류                     | 보안 등급          | 기관 수 | 수용자 수  | 계       |
|----|------------------------|----------------|------|--------|---------|
| 1  |                        | Minimum        | 7    | 23,394 |         |
| 2  | 교도소<br>(FCI, FPC, UPS) | Low            | 36   | 55,730 |         |
| 3  |                        | Midium         | 44   | 53,781 |         |
| 4  |                        | High           | 15   | 18,918 |         |
|    | ADX 교도소                |                | 1    |        |         |
|    | 도심구치소(MDC)             |                | 3    |        | 157,407 |
|    | 도심교정센터(MCC)            |                | 3    |        |         |
| 5  | 연방구치소(FDC)             | Administrative | 5    | 5,584  |         |
|    | 연방환송센터(FTC)            |                | 1    |        |         |
|    | 연방의료센터(FTC)            |                | 6    |        |         |
|    | 연방수용자 의료센터(MCFP)       |                | 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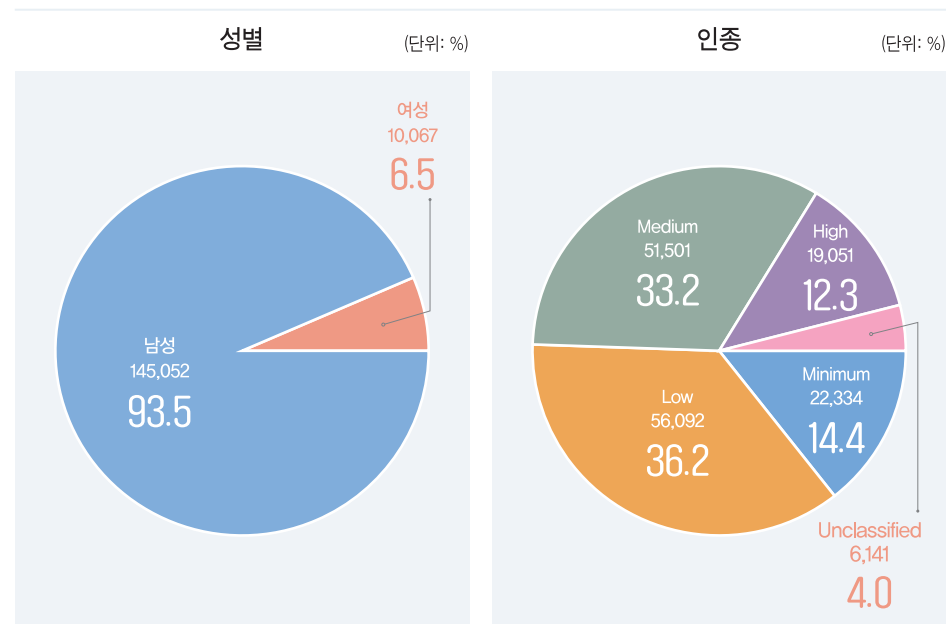


### 3. 수용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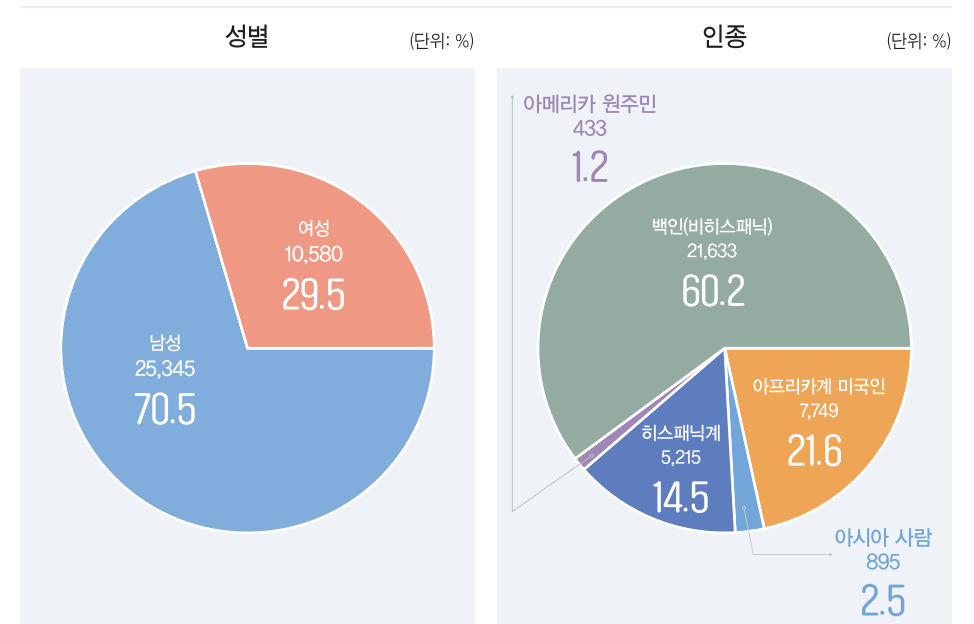


※ 상위 죄명 3개  
① 마약범죄 (43.4%) ② 무기, 폭발물, 방화 (22%) ③ 성범죄 (13.5%)

### 4. 수용자 세부 현황



### 5. 직원 현황



## III. Florence FCC(Federal Correctional Complex)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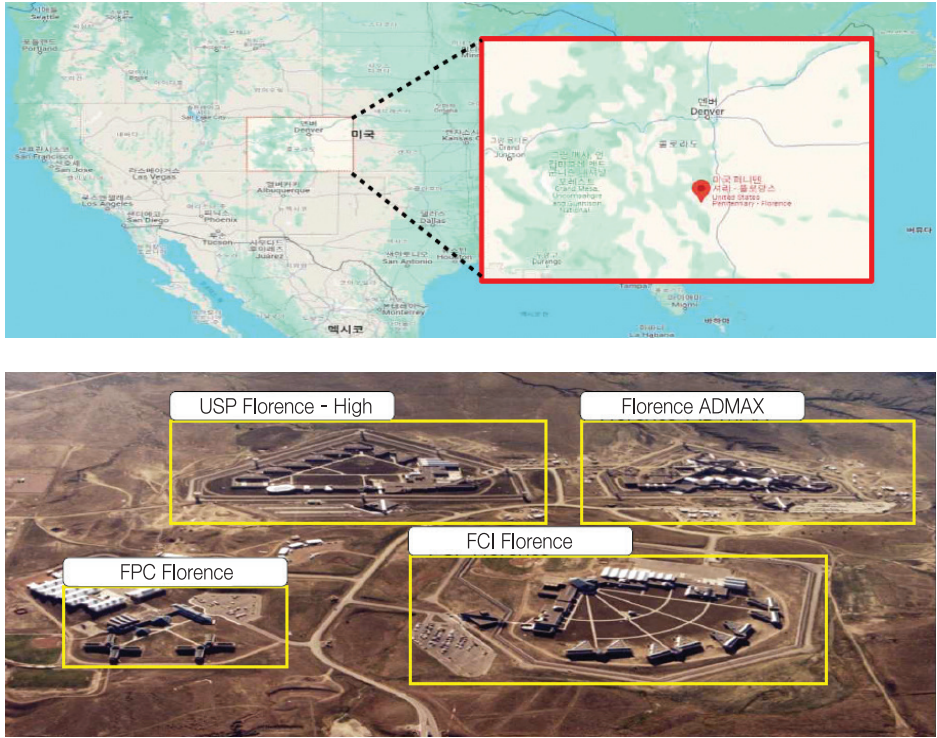
### 1. 개요

FCC(Federal Correctional Complex)는 서로 다른 보안 수준을 가진 기관이 모여 서비스 공유하는 연방 교정단지로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 북부 4개 교정시설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연방 교정단지는 미국 전역에 총 15개를 운영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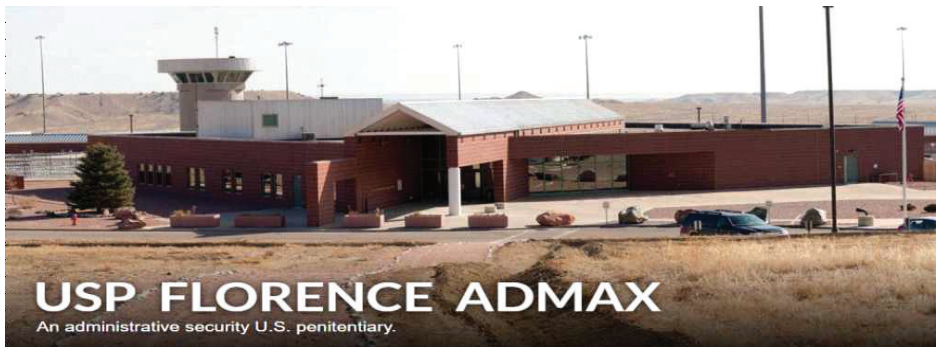
방문한 FCC는 콜로라도에 위치한 Florence FCC로, 다른 FCC와 달리 최고 보안등급 보안시설인 ADMAX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위치 및 전경



3. Florence ADMAX(Administrative Maximum)



| 보안등급 | Minimum      | Low | Medium       | High                | Administrative Maximum |
|------|--------------|-----|--------------|---------------------|------------------------|
| 기관명  | FPC Florence | -   | FCI Florence | USP Florence - High | ADMAX                  |

ADMAX는 ‘로키산맥의 알카트라즈’로 알려져 있는 미국 최고 보안등급 교도소로 방문 당시 355명이 수용 중으로, 동작감지기, CCTV, 1,400개의 원격제어 강철문, 압력 패드, 3.7m의 철조망 울타리 등 최고의 보안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이 시설에는 가장 위험하고, 극도의 보안 위협을 가하는 테러범, 연쇄살인마, 갱단 지도자, 조직 범죄 마피아, 상습 징벌받는 수용자, 폭력성, 공격성이 높은 수용자, 직원 폭행 수용자, 다른 수용자와 교도관을 살해한 수용자 및 스파이 등이 수용된다. ADMAX의 평균 수용기간은 5년으로 1994년에 최초 수용된 수용자 중 30여 명은 아직도 ADMAX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최초 이 시설을 만든 목적은 악명 높은 수용자들을 구금하는 것이었으나 약 10년 전부터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큰 규모로 진행되어, 현재는 이들을 교화시켜 최종적으로 ADMAX를 나가게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관계자가 설명하였다. ADX는 다른 교정시설과 달리 시설이 모두 지하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수형자의 도주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접견실 및 교도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정문이 위치하고 있다.

(1) 접견실

가장 먼저 방문한 접견실은 우리나라의 접견실과 달리 사방이 벽돌로 막혀 있었다. 아래 사진은 접견실 모습으로 수용자 사이의 차단시설 창은 반사 필름이 붙혀져 있어 미사용 시에는 접견실 대기실 모습을 거울과 같이 비추고 있다.



접견은 최대 월 5회이며, 접견 청취는 가능하나 녹음은 불가하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접견 시에도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최고 보안등급 교도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변호인 접견실의 경우, 상반신 높이의 유리 차단 시설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면 전체가 유리로 차단되어 있고, 아래의 작은 틈을 통해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접견실을 나오면 철문으로 닫혀있는 정문이 있고,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분확인 후 손등에 형광 도장 마크한 후에 출입할 수 있었다. 수용동(Unit)은 지하통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통로 상단에 “We make difference”라는 문구가 있어, 최고 보안 교도소임에도 수용자 교정·교화에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수용동 및 거실

수용동은 규모는 크지 않으나 매우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범죄 및 처우 단계에 따라 총 9개의 수용동이 있고, 방문 당시에는 5개를 운영 중으로, 각 수용동에는 보안직원 3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각 수용동마다 상주하여 수용자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수용동(Unit) 모습



수용거실(밖) 강철문

각 수용동 중앙통제실

수용거실 문은 직원이 임의로 열 수 없고 중앙통제실에 요청하여야 개방할 수 있어 보안이 매우 철저했다. 거실은 독거실 490개로 수용자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이 바깥문, 안 쇠창살로 2중으로 되어 있고, 샤워시설도 거

실 안에 있는 구조로 샤워시설은 부스 안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가 작동하여 일정한 시간만큼 물이 나온다고 한다. 또한, 파손이나 파손물로 인한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실 내 설비는 모두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를 파손하거나 이동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



- ① 격리와 보안을 위한 강철문
- ② 쇠창살 문을 통해 식사, 물품 등 교부
- ③ 자살 방지하기 위한 강철 재질의 거울
- ④ 싱크대, 급수대 일체형 변기(파손 및 자해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 수도꼭지 대신 버튼)
- ⑤ 교도소 자체 교육방송과 종교방송만 송출되는 흑백 TV
- ⑥ 자해 방지를 위해 침대, 스톨, 책상을 콘크리트 일체형으로 주조
- ⑦ 침수 방지를 위해 타이머 샤워기
- ⑧ 소형 창문으로 위치 탐지 불가 및 탈출 계획 차단



수용거실 모습(사진 좌측, 샤워부스)



수용거실(안) 쇠창살문

ADMAX에서 수형자는 하루 23시간을 혼자 격리되어 생활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최초 단계인 Control Unit에 해당하고, 수용생활 태도 등에 따라 등급이 상향될 수록 다른 수용자와 함께하는 사회화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USP Florence-High 중 구급 수용동으로 이송되기도 한다고 한다.

참관 시, Step-Down Unit을 방문했을 때 4명의 수형자가 거실 밖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수용동 한 칸에 가상 시뮬레이션 중장비 교육실이 있어 사회 적응 등 교화에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단계 구분 | 수용동(Unit)                                              | 수용생활(처우)                                                                                                                                                                                                                              |
|-------|--------------------------------------------------------|---------------------------------------------------------------------------------------------------------------------------------------------------------------------------------------------------------------------------------------|
| 1단계   | Control Unit<br>(6개월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하루 23시간 동안 격리, 1시간 운동</li><li>별도의 프로그램 없음</li><li>출실 시 직원 3명 계호 (손, 발 수갑 및 허리에 사슬 착용)</li><li>죄명에 따라 1단계 수용 기간이 다름</li><li>규칙 준수 등을 매달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다음 단계 상향 여부 결정 → 규칙 미준수 시 수용기간이 늘어남</li></ul> |
| 2단계   | General Population Units<br>(“D”, “E”, “F”, “G” Uni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하루 22시간 동안 격리</li><li>최대 2시간 거실 밖 활동 가능</li><li>교육 프로그램 제공</li></ul>                                                                                                                            |
| 3단계   | Step-Down Units<br>(“K”, “J” Units)<br>(약 6개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장 완화된 처우가 적용</li><li>직원 폭행 전력 없고, 3년 연속 무사고인 수용자를 수용</li><li>제한된 공간에서 소규모(5명 정도)의 타 수감자들과 자유롭게 이동하며 직접적인 접촉 허용</li><li>ADMAX에서 나가기 전 수용되는 Unit (USP 플로렌스+high 또는 중간처우기관으로 이송)</li></ul>        |

| 지정 구분 | 수용동(Unit)                                         | 생활(처우)                                                                                                                                                             |
|-------|---------------------------------------------------|--------------------------------------------------------------------------------------------------------------------------------------------------------------------|
| 징계 격리 | The Special Housing Unit<br>(“SHU”)<br>2016년부터 폐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징계 격리 대상 수용자</li><li>추가적인 보호 필요한 수용자</li></ul>                                                                               |
| 특별 관리 | Special Security unit<br>(“H” Unit)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특별관리 지정 대상 수용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 법무부가 지정한 테러리스트</li><li>- 특별 행정 조치(SAM)을 받은 수용자</li></ul></li></ul>   |
| 테러 단체 | “Range 13”<br>(특수 수용소 4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가장 강한 통제를 받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테러단체 구성원</li><li>- 특별 행정 조치(SAM)을 받은 수용자</li></ul></li></ul> |

4. FCI(Federal Correctional Institution) Florence



| 보안등급 | Minimum      | Low | Medium       | High                   | Administrative Maximum |
|------|--------------|-----|--------------|------------------------|------------------------|
| 기관명  | FPC Florence | -   | FCI Florence | USP Florence<br>- High | ADMAX                  |

일반(Medium) 보안등급의 교도소로 방문 당시 1,149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연방 교도소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일반 보안등급이며, 이 시설의 경우 전체가 2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감시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FCI 전경 및 참관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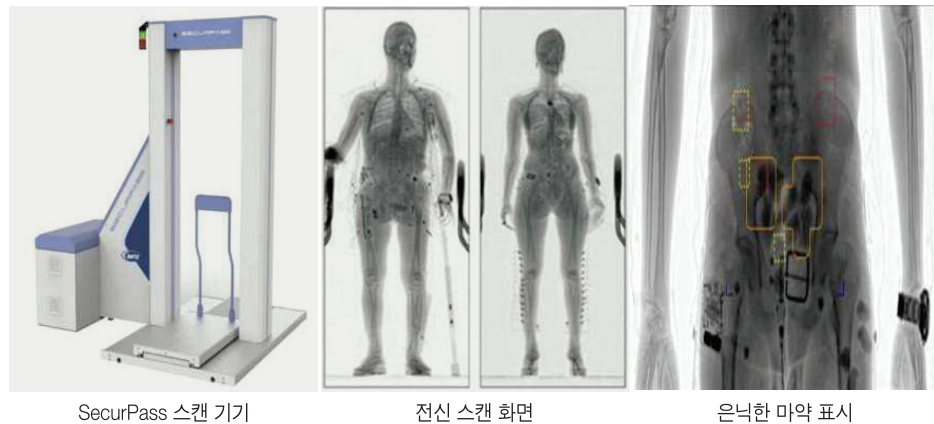
### (1) 접견실

ADMAX와 달리 보안검색대를 지나면 지상에 접견실이 바로 위치하고, 접견실은 차단시설이 없는 넓고 개방된 공간에 여러 개의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로, 접견실 입구에는 바닥에는 빨간 사각형 표시(허그 박스)가 있어 이 허그 박스 안에서 가족과 키스 및 포옹이 1회 가능하다고 한다.

접견은 테이블을 두고 서로 마주 앉아 접견하는 방식으로 테이블마다 수형자의 자리가 고정되어 수형자는 임의로 움직일 수 없지만 가족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25달러 한도 내에서 접견실에 비치된 자판기를 이용하여 가족이 수형자와 음료 등을 먹으며 접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외, 접견실 안쪽에는 어린이날을 위한 별도의 접견실 및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 (2) 신입실

접견실을 지나 신입실로 이동, 이곳에는 고성능 X-ray 기기가 있어 신입자가 은닉한 마약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 신입수용자의 마약은닉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우리 교정시설에도 반드시 도입이 필요해 보였다.



SecurPass 스캔 기기

전신 스캔 화면

은닉한 마약 표시

### (3) 수용 처우

수용자간 편지는 교도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주고받을 수 있으며 모든 발신·수신 편지에 대해 모두 내용을 검열한다고 하여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이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놀라웠다.

수용자의 일과시간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수용자마다 ID카드가 있어 급속

탐지기 출입 시 ID카드를 스캔하여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여 운동, 직업훈련, 특별활동, 종교활동 및 학과교육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여 계호 동행을 하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운동은 평일만 가능하며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가능하나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학과교육, 식사 등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한다고 한다. 교정시설 중앙에 위치한 운동장과 구기종목 운동장은 매우 넓었으며, 비오는 날에는 실내 체육관이 있어 이 곳에서 운동이 가능하고, 실내 체육관은 레크레이션 장소나 영화 상영 등으로도 활용한다고 한다.

종교집회는 26개를 운영 중이며, 외부 종교인이 방문하거나 수형자가 돌아가며 종교집회를 인도한다고 하며, 특히 토착 신앙을 위한 야외 종교 장소가 구기종목 운동장 쪽에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특별활동실이 마련되어 있고, 동아리 방처럼 나뉘어져 있어 악기 연주, 페인팅, 가죽수공예 등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곳에서 만든 작품을 1년에 한 번 외부에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원된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 우리 교정도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 목수 훈련반이 있어, 미연방 교정국이나 시설 자체적으로 필요한 테이블, 나무 상패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 중장비 기술 숙련을 위한 CAT 모의 연습장비가 있어 기술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

### (4) 마약사범 수용동



마약 수용동

마약류 수형자의 경우, 집금 수용하여 오전에는 마약치료 교육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일반 수형자와 같이 자유시간으로 학과교육, 특별활동 등 다른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마약 치료 프로그램은 잔형기 2년 이내의 마약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3단계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중간 처우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고, 만약 중간 처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다시 3단계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5. FPC(Federal Prison Camp) Florence



| 보안등급 | Minimum      | Low | Medium       | High                   | Administrative Maximum |
|------|--------------|-----|--------------|------------------------|------------------------|
| 기관명  | FPC Florence | -   | FCI Florence | USP Florence<br>- High | ADMAX                  |

FPC Florence는 약 100명을 수용 중인 소규모 시설로, Florence FCC 내에서 가장 낮은 보안등급의 교정시설로 벽이나 울타리가 없는 것이 특징으로, 단순 무장 강도, 절도, 주거침입, 강도강간, 성폭행범 등 비교적 가벼운 전과가 있고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다.

### (1) 개 훈련 프로그램



이곳은 수형자 교화를 위해 개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개 훈련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 [개 훈련 프로그램]

- 수형자가 개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등 사회에서 필요한 특수 목적견으로 훈련시키는 교화 프로그램
- 개 훈련을 위해 수형자가 먼저 8주간 개 훈련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자신에게 배정된 개에게 먹이주기, 사회화 등 하루 24시간 돌보고 훈련함으로써 책임감을 배양
- 개 훈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4,000시간을 수료한 수형자에게 견습 수료증을 주어 향후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2) 거실

다른 교도소와 달리 수용시설은 개방된 막사 공간을 가슴 높이의 콘크리트 벽으로 구획을 나눠 생활하고 있었으며, 각 구획마다 위 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수형자와 개 1마리가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고 있었다.

### (3) 자유로운 출입

이곳은 외부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으로, 참관 당시 아래 사진처럼 개를 데리고 FPC Florence로 복귀하는 외부작업 수형자를 만날 수 있었다.





6. USP Florence - High(United States Penitenti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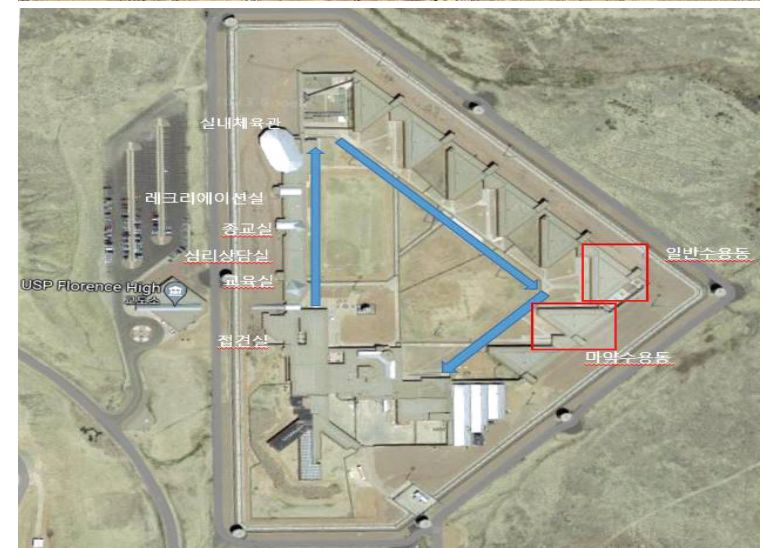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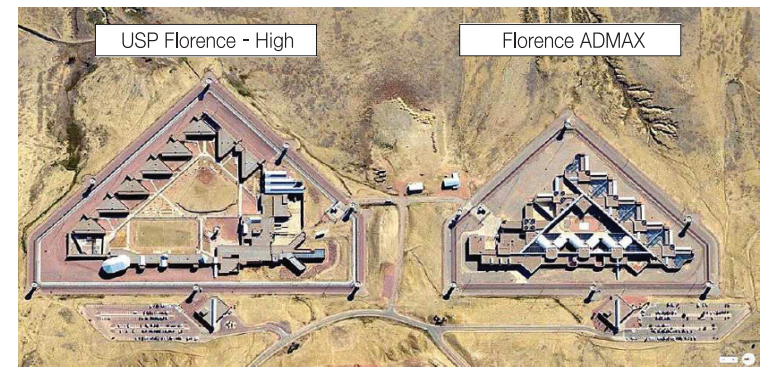


| 보안등급 | Minimum      | Low | Medium       | High                | Administrative Maximum |
|------|--------------|-----|--------------|---------------------|------------------------|
| 기관명  | FPC Florence | -   | FCI Florence | USP Florence - High | ADMAX                  |

높은 보안등급의 교도소로 955명을 수용 중이며, 시설 전체가 2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 개의 감시탑이 존재하며, USP Florence-High 수용 대상자는 1~2급 살인, 연쇄살인범, 살인 청부업자, 테러리스트, 산업스파이, 갱단조직두목, 연쇄탈옥범 등 격리조치가 필요한 수형자이다.



한국 방문단을 맞이하는 USP Florence-High 직원





### (1) 수용동

USP Florence-High는 8개의 수용동이 있으며, 6개의 일반 수용동과 2개는 중구급 수용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구급 수용동에 참관할 수 없었지만 ADMAX에서 이송 온 수형자, 약물치료 프로그램을받는 수형자를 수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 • 일반 수용동

일반 수용동은 아래와 사진과 같은 구조로, 128명의 수형자를 수용하고보안직원 2명 및 사무직원 2명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USP Florence-High와 유사한 구조의 수용동 사진

06시 ~ 20시 30분까지 거실문이 개방되어 있어 우리가 방문 시, 많은 수형자가 거실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이동하며 대화를 하고 있어 마치 시장에 온 것처럼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다. “이곳이 높은 보안등급 교도소가 맞나?”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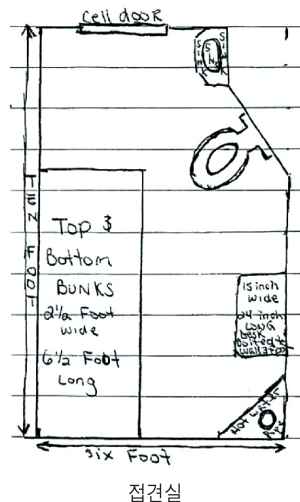
수많은 남성 수형자 가운데 이들을 관리

하는 여성 교도관 1명이 눈에 띄었고 여성 교도관이 남성 수형자를 계호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지 소장(여성)에게 묻자, 소장은 자신 포함, 여직원들은 훈련을 받고 장비를 휴대하고 있으며, 사격 연습 또한 계속하기에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2) 거실

거실은 아래와 같은 구조이며, 2층 침대를 두어 2인 1실 구조였다.

- 음란 도서, 사진은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으면 허가하고 있다고 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 식사는 식당에서 하며, 샤워는 수용동에 설치된 샤워실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 거실 검사는 특정 날짜나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시 언제든지 검사한다고 한다.



### • 마약 수용동

USP Florence-High에서는 한 수용동을 마약 전용 수용동(약물 남용 수용동)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곳에 마약류 수용자를 집금하여 오전에 마약 치료프로그램을 오후에는 자유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마약 수형자를 3그룹으로 나눠 CBT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며,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BT 프로그램 내용

1. 좋은 선택하는 방법
2. 범죄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
3.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기회 제공

이곳은 FCI Florence와 달리 잔형기 2년에서 3년 이내인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 수료 시 형기를 줄여주기도 한다고 한다.

### (3) 기타 수용 처우

#### • 학과 교육

교육실은 6~7학년의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학과교육을 실시, 현재 165명이 참여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90분씩 4개의 교실에서 나눠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 • 심리치료

FCC의 다른 기관처럼 이곳에도 심리치료실이 있어, 분노 조절, 문제 해결, 범죄적 생각 등 7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정신 분류 Care 3단계 수용자를 수용하는 기관으로 이들에 대해 1:1 또는 집단상담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USP Florence-High에는 총 7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다.

#### 정신분류 단계

- Care 1: 일반 수용자
- Care 2: 정신이상인 수용자로 1달에 1번 치료
- Care 3: 정신이상인 심각한 수용자로 1주에 1번 치료
- Care 4: 상담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이상 수용자로 약물 치료



**• 종교 행사**

종교실에서는 20여 개의 종교집회와 교리 공부를 실시하며, 요일별로 종교 행사 일정표가 있어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교집회 안내방송이 나오면 직원 동행하에 참석하며, 1주일에 예배 1시간, 교리 공부 1시간으로 진행하나 외부 자원봉사자 등을 모시기 어려운 경우, 수형자가 돌아가며 책과 영상으로 종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실이 있어 그림 그리기나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으며, 2명의 직원이 상주하여 수형자가 자신의 일과 후 이곳에서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높은 보안등급 교도소임에도 직원의 동행 없이 수형자가 독보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 IV. 나가며

짧은 기간 동안 일부 교정기관만을 참관하여 미국교도소 교정행정을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교도소는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와 통제가 잘 유지되고 있고,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수형자 교정 교화 및 심리치료를 통한 재사회화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관 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보안 직원들이 근무 조끼 및 수갑 등 교정 장비가 장착된 근무 벨트를 차고 근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우리 일행을 안내하는 소장 또한 일반 직원과 같이 근무벨트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며 동등한 직원으로서 보안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과 직원들과 권위적이지 않고 편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처음 방문한 Florence ADMAX의 경우, 악명 높은 수용자들을 단순히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로 교화 프로그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수형자 심리치료 등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보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 놀랐다.

USP Florence-High에서 1명의 여성 교도관이 수용동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수많은 남성 수형자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미연방 교정국의 강력한 공권력에 감탄했으며, 연방 교정국 여 교도관 비율이 29.5%나 된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최근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마약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교정본부에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이온스캐너 도입하여 활용 및 치료 프로그램 개

발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관련, 우리도 미국 교도소처럼 고성능 전신 X-ray 스캐너를 도입 및 법원 이수명령에 따른 마약치료 프로그램을 이행을 넘어서 전문 강사 교육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마약 프로그램 시행으로, 수형자가 스스로 마약을 벗어날 수 있는 재활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해 본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시찰 관련 친절한 설명과 호의를 베풀어 주신 FCC 교정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우호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 마약류사범에 대한 ——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상)

- 교정시설 재활교육을 중심으로 -



김도균  
교정본부 마약사범재활팀 교정관

## 목차

- I. 서론
- II. 마약류사범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분석 결과
- V. 결론

참고문헌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65세 이하 한국인 마약류 투약사범 중 931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재범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의 재범가능성이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하지만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Cox 비례위험분석 결과에서는 재활교육을 받은 집단이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재범위험이 낮아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실함연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에서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 지속 및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주요 통제변수들을 분석모형에 최대한 반영한 이후 도출된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 마약류사범, 재범, 재활교육, 로지스틱 회귀분석, 생존분석





## I. 서론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엄벌주의 트렌드는 2013년 모든 성범죄 관련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 전면 폐지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내처분 강화와 법정형 상향 조치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오윤이 & 나종민, 2023). 마약류 범죄 또한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며 2020년부터는 재활교육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마약류사범 단속인원은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 2024년 23,022명에 달해(대검찰청, 2024), 마약류범죄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에는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향상에 좋은 음료라고 속여 마약음료를 먹이고 협박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약류 범죄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정부는 일상까지 침투한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마약류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높은 재범률에 있다. 재범률을 단속인원 대비 재범인원으로 보는 대검찰청 기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2.8%이다(대검찰청, 2024). 또한 2023년 기준 마약류사범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은 31.9%로, 전체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이 22.5%인 점을 고려할 때(법무부, 2024) 마약류사범의 재범 문제가 다른 범죄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약류를 판매·유통·경작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공급억제 정책에 해당하며,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람을 단속하거나 중독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을 시도하는 것은 수요감소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마약류사범(향정사범)의 범죄 원인은 중독(22.0%), 영리(10.5%), 유혹(10.0%), 호기심(8.6%) 순으로 나타나며, 기타(42.7%)를 제외하면 중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대검찰청, 2024). 이는 마약류 수요감소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이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s),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약물 사용 장애 사후 관리(Aftercare) 프로그램 등 마약류 범죄 대응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해외에는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제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실제 재범(마약류 재투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연구자가 다수의 마약류 중독자를 만나기 어렵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마약류를 투약했는지를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공백과 함께 마약류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높은 시의성을 가진다.

이하에서는 마약류 중독과 치료·재활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국내 마약류사범 재활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여,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재범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이 재범여부 및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마약류 범죄 대응에 적합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형사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마약류사범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1. 마약류 중독의 치료

마약류 중독치료 방법은 크게 약물치료방법과 행동치료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료용 약물은 중독성 약물의 대체용으로 갈망을 진정시켜주는 종류와, 수용체의 길항제로서 중독성 약물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작용하여 효과를 방해하는 종류 등이 있다. 헤로인, 모르핀, 옥시코틴 등 아편류에 처방되는 치료제는 메타돈, 부프레노핀, 날트렉손, 날메펜이 있으나(Kuhar, 2014), 메트암페타민, 대마, 코카인, 엑스터시, LSD, 케타민 등은 승인받은 약물치료제가 없다. 행동치료에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MI),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 익명의 마약중독자 자조모임(Narcotic Anonymous: NA) 등이 있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 사고와 행동 패턴을 수정하여 자기 조절력을 높이고(McHugh et al., 2010), 동기강화상담은 변화에 대한 개인의 내적 동기를 증진시킨다(Miller & Rollnick, 2013). 치료공동체는 공동체 의식을 통해 변화를 촉진하며(Leon, 1995), 자조모임은 12단계 치료 원리를 기반으로 중독자들이 단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박종주, 2018).



## 2. 재활교육과 재범 간 관계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수많은 국외 연구가 있으나, 특히 교정시설 내 재범 방지 프로그램 및 약물범죄 재범 방지에 초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ttfredson et al. (2003)은 약물치료법원이 전통적 사법 처분보다 재범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며, 참여율이 높은 피고인일수록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밝혔다. Wilson et al. (2006)의 메타분석은 약물치료법원이 단기적으로 재범 방지에 효과적임을 보여줬지만, 장기적 효과는 프로그램 이후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Rossman et al. (2011)은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1,156명을 대상으로 약물치료법원의 재범 방지 효과를 분석하는 다지역 연구를 수행하였다. 약물치료법원 참가자는 대조군에 비해 재범률과 약물 사용 빈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물치료법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재범 방지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으며, 초기 높은 준수율이 장기적인 성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Timko & DeBenedetti (2007)은 약물 사용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12단계 자조모임의 효과를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평가했다. 집중 의뢰 그룹은 자원봉사자 연결 등 추가 지원을 받았고, 이 그룹의 모임 참석률과 금주율은 표준 의뢰 그룹보다 높았다. 연구는 12단계 자조모임이 알코올 및 약물 사용 감소에 효과적이며, 집중 의뢰가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De Leon (2010)은 치료공동체가 특정 약물 중독자 하위 집단에서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치료 방법임을 강력히 뒷받침한다고 결론지었으나, 치료공동체가 근거 기반 접근법으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을 포함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Vanderplasschen et al. (2013)은 치료공동체가 약물 사용, 법적 문제, 심리적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으며, 회복 중인 중독자들이 금욕과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tchell et al. (2012)은 교정시설 내 약물 치료프로그램의 재범률 및 범죄 행동 감소 효과를 메타분석으로 검토했다. 23,000명 이상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74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약물 치료를 받은 수감자는 재범 가능성이 낮았으며, 치료공동체가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약물 치료 효과는 출소 후 관리와 지역사회 지원 여부에 따라 지속성이 달라졌다. 따라서 동 연구는 강도 높은 프로그램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Welsh et al. (2014)은 펜실베이니아 교도소 수감자 790명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와 외래상담의 재수감률 영향을 무작위 실험으로 조사했다. 분석 결과, 치료공동체가 외래상담보다 항상 우월하지는

않았으며, 효과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위험 수준, 부정적 정서 등)에 따라 달라졌다. 특히, 치료공동체는 높은 재범위험성과 부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 또는 치료 동기가 강한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이었다.

Doleac et al. (2020)은 세 가지 무작위 대조 실험(RCT)을 재분석하여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인과적 효과를 검토했다. SCF(Swift, Certain, and Fair) 기반의 DYT(Decide Your Time) 프로그램은 초기 연구와 달리 긍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치료공동체(TC)는 재범 감소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용 및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옥스퍼드 하우스(Oxford Houses, OH) 프로그램은 고용 증가를 시사했지만, 동시에 수감 일수가 증가하는 혼재된 결과를 보였다. MCORP(Minnesota Comprehensive Offender Reentry Plan)는 재범 감소 효과를 보였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편향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한편, 다양한 국외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이뤄진 실증적 국내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조중현과 손정락(2013)은 치료센터 입소자 및 교도소 수용자 등 마약류 중독자 22명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울 수준 감소, 충동성 수준 감소, 단약 자기효능감 수준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윤혜진(2016)은 치료감호소에 복역 중인 남성 마약중독자 40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주 2회씩 총 8회(각 회당 1시간)의 집중명상(samatha) 프로그램이 마약 갈망, 자아존중감, 단약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집중명상프로그램을 실시한 치료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마약 갈망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자아존중감 및 단약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 유숙경과 이경원(2020)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마약류 사용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면아이(inner child)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마약류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3시간씩 총 14회의 교육을 시행한 결과, 양적 분석에서는 통제집단 대비 실험집단이 삶의 의미 찾기, 긍정적 정서 강화, 부정적 정서 저하, 우울 극복, 단약 의지, 변화 준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질적분석에서도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중독 치료에서 완전한 단약뿐만 아니라 사용량 감소도 치료의 부분적 성공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약물 사용자는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치료를 구하기 시작한다고 한다(Kuhar, 2014). 중독 연구 분야에서는 이를 바닥치기(hitting bottom) 경험이라고 지칭한다(한부식 & 황인옥, 2017). 최경찬과 이지연(2023)이 전국에 교정시설 8곳에서 총 206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경험’ 강도에 따른 변화단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바닥 경험 강도가 증가할수록,



Prochaska et al. (1992)가 제시한 초이론적 모델 변화단계의 숙고단계(문제의식과 함께 변화에 대해 조금씩 생각)·준비단계(변화를 결심하며 계획)·실행단계(변화를 행동)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내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재활교육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기본과정·집중과정·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재활교육은 10명 내외의 마약류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재활교육을 받고 출소한 사람은 <표 1>과 같이 기본과정 16시간, 집중과정 26시간, 심화과정 134시간 기준으로 구성된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받았다.<sup>1)</su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이수명령을 법제화하기 이전의 재활교육은, 재활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마약류사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2018년 재활교육을 이수한 마약류사범은 기본과정 658명, 집중과정 113명, 심화과정 27명으로 총 788명이며, 2019년 재활교육을 이수한 마약류사범은 기본과정 610명, 집중과정 125명, 심화과정 38명 총 773명이다(법무부, 2024).

<표 1> 2018~2019년 교정시설 재활교육 프로그램

| 시행기관                      | 재활교육 프로그램      | 운영형태                                                                                                                                                  |
|---------------------------|----------------|-------------------------------------------------------------------------------------------------------------------------------------------------------|
| 전국 52개 교정시설<br>(교도소, 구치소) | 단약동기증진<br>기본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집단별 8회기, 회기당 2시간, 총 16시간 교육</li><li>집단규모 : 8명 내외</li><li>해당 교정시설 내 마약류 재소자 중 선발</li></ul>                       |
| 전국 8개 교정시설                | 단약동기증진<br>집중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집단별 13회기, 회기당 2시간, 총 26시간 교육</li><li>집단규모 : 8명 내외</li><li>전국 교정시설 내 마약류 재소자 중 선발</li></ul>                      |
| 군산교도소<br>(제2심리치료센터)       | 단약동기증진<br>심화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치료공동체를 통한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li><li>3개월 과정(총 134시간)</li><li>마약류사범 중 집중적인 치료·재활을 요하는 재소자 중 선발</li></ul> |

1) 마약퇴치운동본부. (2018).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대상 재활교육 프로그램. Retrieved from January 27, 2025, <https://www.drugfree.or.kr/webzine/magazine/3/post-35.html>



한편,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어 2020. 12. 4.부터 법원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의 범위에서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있다.<sup>2)3)</sup>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에 따라 법무부는 재활교육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2025년 기준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기본(40시간)·집중(80시간)·심화(120시간)·회복이음(16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과정은 사전·사후 면담, 중독원인분석, 동기강화상담, 집단상담 등으로 구성된다. 집중과정은 기본과정의 내용에 인지행동치료, 개인상담 등이 추가된다. 심화과정은 집중과정의 내용에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추가된다. 회복이음과정은 12단계 촉진치료, 자조모임, 치료공동체, 맞춤형 재활상담,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직업재활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각 교육과정은 집단·개별 상담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 시간보다 더 적거나 많은 교육 시간이 운영될 수 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사범”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감명령(이하 “수감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감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관리법[법률 제16714호]는 2019.12.3. 개정되었으나 제40조의2(형벌과 수감명령 등의 병과)는 경과규정으로 인해 2020.12.4. 시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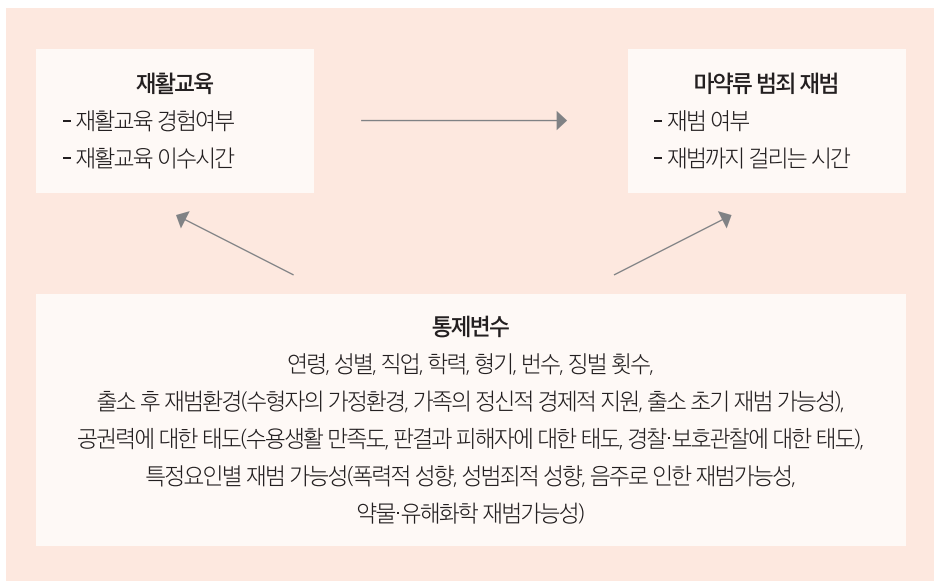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모형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은 원래 계획·의도된 대로 잘 집행될 경우 재범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도식화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재활교육과 재범 간 관계 연구모형



독립변수는 마약류사범의 재활교육 경험여부와 재활교육 이수시간이며, 종속변수는 출소 후 관찰 종결 시점까지의 재범 여부와 재범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마약류사범의 연령, 성별, 직업, 학력, 형기, 번수, 징벌 횟수, 출소 후 재범 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이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재활교육은 재범 여부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재활교육 경험은 재범 여부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재범 여부와 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 검정이 단순히 재활교육과 재범 여부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는 데 비해, 가설 2

검정은 보다 구체적으로 재활교육이 실제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미재범 시 출소 후 관찰 종결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 가설 2** 재활교육과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은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재활교육 경험은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과 정(+)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제공한 익명화된 2차 데이터이며, 2018년과 2019년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사범 3,387명 중 65세 이하 한국인 마약류 관리법위반(향정) 사범 전원을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여 무작위 표본추출한 931명에 대한 정보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연구 수행 허가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이수명령을 법제화하기 이전의 재활교육은 각 교정시설에서 재활교육을 희망하는 마약류사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교육을 받지 않은 마약류 투약사범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교육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형 확정 후 형기 종료 전까지의 남은 기간이 짧아 교육 참여가 시간상 불가능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둘째, 인지능력 부족·건강 문제 등의 사유로 교육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재활교육 참여를 희망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재활교육의 효과에 연구의 초점이 있으므로 언어적 문제로 재활교육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인지적 문제와 건강상 문제로 재활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5세 초과 고령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범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여,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과 동시에 재범률 또한 가장 높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sup>4)</sup> 데이터 결측치는 존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표본은 931명이다.

4) 2023년 향정사범의 재범률이 36.4%로 가장 높고, 대마사범은 36.3%, 마약사범은 11.4%이다. 2023년 마약류사범 27,611명 중 향정사범은 19,556명이며, 대마사범은 4,085명, 마약사범은 3,970명이다(대검찰청, 2024).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 가) 종속변수

가설 1의 검정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인 재범여부는 마약류 사범이 형기를 마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 시설에 재입소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재범여부 측정은 2018년과 2019년에 출소한 마약류사범의 추적관찰 종결 시점인 2024년 9월까지 교정시설 재입소 여부를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미재범(0)’, ‘재범(1)’로 더미 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가설 2의 검정을 위한 생존분석에 사용될 종속변수인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은 동 기간 출소한 마약류사범이 재범으로 교정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출소 시점부터 재입소 시점까지 걸린 시간(일), 그리고 재범을 하지 않은 경우 출소 시점부터 관찰 종결 시점까지 걸린 시간(일)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sup>5)</sup>

#### 나) 독립변수

가설 1과 2의 검정에 이용된 독립변수인 재활교육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투약사범이 확정판결로 형이 확정된 후 이수한 재발방지 교육을 말한다. 우선 재활 교육 여부는 재활교육을 받지 않은 수용자를 ‘미교육(0)’, 재활교육을 받은 수용자를 ‘교육(1)’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1시간을 측정 단위로 한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뤄진 재활교육은 교정시설이나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나, 교육 내용은 동기강화상담, 인지행동치료, 개인·집단상담으로 대부분 유사하다. 같은 교육과정에 편성된 마약류 투약사범이라 하더라도 개별상담이 추가될 수 있어 재활교육 이수시간은 유동적이다.

#### 다)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현재 법무부가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의 분류심사 및

5) 마약류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은 범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하였더라도 재입소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를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없어 재입소한 사례로 재범여부를 측정하였다.

재범위험성<sup>6)</sup> 평가 시 반영하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 형기, 범죄경력(범수), 징벌<sup>7)</sup> 횟수,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 가능성이다.

분류심사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재범위험성 평가란 분류심사 시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재범위험성 평가는 교정재범예측지표(Correction Recidivism Prediction Index, REPI)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23개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수형자의 재범위험성을 5단계로 등급화하여 분류하는 평가도구로, 법무부가 2011년 2,500여 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기록조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개발하였다.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성별은 남성(0), 여성(1)의 이분형 변수로 구성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0), 중학교 졸업(1), 고등학교 졸업 이상(2)의 서열형 변수로, 직업은 단순노무종사자 외 직업(0), 단순노무종사자(1), 무직(2)의 범주형 변수로 측정되어 각 범주별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형기는 1년 미만(0),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1),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2), 2년 6개월 이상(3)으로, 범죄경력(범수)은 1범(0), 2범(1), 3범 이상(2)으로 측정되었으며 분석 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징벌 횟수는 수감 중 징벌을 받은 횟수로 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었다. 출소 후 재범환경, 공권력에 대한 태도, 특정 요인별 재범가능성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평가범주 세부항목의 평균점수로 평가되며, 이는 <그림 3> 교정재범예측지표 채점표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가석방 심사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반영하여 <그림 3>과 같이, 출소 후 재범환경은 평점이 3.8~5점인 경우 양호(0), 3.1~3.7점인 경우 보통(1), 2.4~3점인 경우 불량(2), 0~2.3점인 경우 매우 불량(3)으로 범주화하였다. 공권력에 대한 태도는 평점이 3.6~5점인 경우 양호(0), 3.2~3.5점인 경우 보통(1), 2.8~3.1점인 경우 불량(2), 0~2.7점인 경우 매우 불량(3)으로 범주화하였다.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은 평점이 3.8~5점인 경우 양호(0),

6) 법무부는 분류처우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2023.6.29., 일부개정] 제73조에 근거하여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한다.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그림 2〉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중 동적요인 평가사항<sup>9)</sup>

| 12. 동적요인 평가사항                                                                                                          |                   |       |    |                        |
|------------------------------------------------------------------------------------------------------------------------|-------------------|-------|----|------------------------|
| • 5점 척도로 평가 : 매우불량(1점), 불량(2점), 보통(3점), 양호(4점), 매우양호(5점)<br>※ 평가방법 : 학력, 성장과정 및 가정환경, 가족관계, 접견, 비행경력 등 분류조사사항을 참고하여 평가 |                   |       |    |                        |
| 평가범주                                                                                                                   | 내 용               | 평가결과  | 점수 | 평점<br>(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 (1) 출소 후<br>재범환경                                                                                                       | ① 수형자의 가정환경       | 매우 불량 | 1  | 1.7                    |
|                                                                                                                        | ②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지원  | 불량    | 2  |                        |
|                                                                                                                        | ③ 출소초기 재범가능성      | 불량    | 2  |                        |
| (2) 공권력에<br>대한 태도                                                                                                      | ① 수용생활 만족도        | 보통    | 2  | 3                      |
|                                                                                                                        | ② 판결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양호    | 3  |                        |
|                                                                                                                        | ③ 경찰,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 불량    | 4  |                        |
| (3) 특정요인별<br>재범가능성                                                                                                     | ① 폭력적(충동적) 성향     | 양호    | 4  | 3.3                    |
|                                                                                                                        | ② 성범죄적 성향         | 매우 양호 | 5  |                        |
|                                                                                                                        | ③ 음주로 인한 범죄가능성    | 보통    | 3  |                        |
|                                                                                                                        | ④ 약물·유해화학관련 범죄가능성 | 매우 불량 | 1  |                        |

〈그림 3〉 교정재범예측지표 채점표<sup>10)11)</sup>

|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 |             |           |           |           |              |
|----------------|-------------|-----------|-----------|-----------|--------------|
| 수용기관           |             | 수용자번호     |           | 성명        |              |
| 생년월일(나이)       |             | 현재죄명      |           | 범죄(수용)횟수  |              |
| 기결입소일          |             | 형명형기      |           | 형기종료일     |              |
| 번호             | 문항          | 0<br>(양호) | 1<br>(보통) | 2<br>(불량) | 3<br>(매우 불량) |
| 1              | 성별          | 여 자       | 남 자       |           |              |
| ⋮              |             |           |           |           |              |
| ⋮              |             |           |           |           |              |
| 19             | 출소 후 재범환경   | 3.8~5점    | 3.1~3.7점  | 2.4~3점    | 0~2.3점       |
| 20             | 공권력에 대한 태도  | 3.6~5점    | 3.2~3.5점  | 2.8~3.1점  | 0~2.7점       |
| 21             | 특정요인별 재범가능성 | 3.8~5점    | 3.3~3.7점  | 2.8~3.2점  | 0~2.7점       |
| 22             | 교정심리검사 비행전력 | 45점 이하    | 46~47점    | 48~52점    | 53점 이상       |
| 23             | 교정심리검사 절망감  | 41점 이하    | 42~44점    | 45~51점    | 52점 이상       |

※ 23개 문항을 합산한 총점이 0~6점 : REPI-1, 7~10점 : REPI-2, 11~16점 : REPI-3, 17~21점 : REPI-4, 22점 이상 : REPI-5, REPI 등급이 높을수록 재범위험성이 높음.

3.3~3.7점인 경우 보통(1), 2.8~3.2점인 경우 불량(2), 0~2.7점인 경우 매우 불량(3)으로 범주화하였다.<sup>8)</sup> 이러한 범주형 변수들도 서열형 변수이나 분석모형의 단순화를 위하여 연속형 변수로 처리하였다.

한편, 2018~2019년 재활교육 과정 간 교육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재활교육 전후 이감되는 사례가 많아, 본 연구에서 재활교육 과정과 재활교육 운영기관은 통제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4.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9.4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가설 1에 해당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교육과 재범여부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설 2 검증을 위해서 우선 Kaplan-Meier 생존분석으로 재활교육 여부에 따른 생존율 차이를 분석한 이후, 다른 통제변수들까지 고려해 Cox 비례위험분석을 진행하였다. Cox 비례위험모형은 비례성 가정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나 (Bradburn et al., 2003) 비례성 검정 결과 동적요인 평가사항에 관한 변수가 비례성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비례성 가정을 위반한 변수를 이분형 변수로 처리하였으며(Clark et al., 2003), 그 결과 비례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 다음 호에 이어서

8) 동적요인에 대한 평가가 교정재범예측지표로서 적절히 기능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수형자 재범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교정재범예측지표에 따라 범주화하였다.  
9)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2023.6.29., 일부개정] 제24조(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 작성 등) ①소장은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자를 제외한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인 「수형자 분류처우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한다.  
10) 분류처우 업무지침[법무부예규 제1323호, 2023.6.29., 일부개정] 제75조(재범위험성 평가방법) ①소장은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정재범예측지표(신입심사)」를 작성한다.  
11) 분류처우 업무지침[시행 2024.7.1.] [법무부예규 제1341호, 2024.6.26.,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교정재범예측지표」가 개정되었으나 본 연구 대상은 개정 전 교정재범예측지표를 적용받았음.



# 이상동기 범죄 ——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이용주**  
화신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강사

##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22년에 용어를 공식화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한 범행동기가 없고 범죄 유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식적인 통계도 2023년에 와서야 비로소 기록하였다. 경찰청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와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범행 동기,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대응방안은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및 정신질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범행동기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이상동기 범죄, 불특정 다수,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정신질환형





## I. 서론

2023년 서현역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명확한 범행동기 없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은 우리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가 2020년 이후 증가하면서 경찰청은 기존의 일명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공식 개념화하고 관련 통계자료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2023년 공식적인 통계로 보면 이상동기 범죄는 총 44건으로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이 발생하였다(정지혜, 2024).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범죄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 국민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촉구와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이상동기 범죄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 중에 특히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대검찰청, 2023a: 3-4)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의를 보면,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이 긴급하다고 보고 이상동기 범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였다.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치안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특징은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 발생 원인은 소외, 좌절, 빈곤 등으로 자신이 사회적 불평등의 피해자로 보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증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잘못된 가치관, 다양한 형태의 폭력적인 콘텐츠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공포감은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무런 잘못 없이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회 전반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범죄의 원인이 다양하여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이상철, 2023).

이상동기 범죄는 전통적인 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이상동기 범죄자가 정신질환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동기가 없어 확인이 어렵고, 범죄 피해 대상이 특징적

이지 않아 예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예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CCTV 설치를 늘리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대책 역시 다양해야 한다. 이상동기 범죄가 전반적인 사회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책 수립과 지속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처로 법무부는 이상동기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의뢰하였고 윤정숙 등(2017)은 교정시설 수형자 5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이상동기범죄를 다음 세 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현실불만형은 불안한 자기개념과 취약한 정서성과 적응적인 감정표현 기제의 부족 등이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전위보복형은 분노와 적개심에 대한 미약한 통제력이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상사고형은 자신의 신체상태에 대한 염려와 피해적 사고 등 왜곡된 신념체계가 범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에서는 2017년 동기없는 범죄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2018년 대상자 특성 연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에 착수하여 2019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 없는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관련연구와 시범시행을 통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상동기범죄를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 약물남용형으로 나누고, 분류처우위원회에서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로 확정된 자 중 형기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등 7개청 소속센터와 진주교도소 등 5개 심리치료과를 포함한 12개 기관에서 자기이해·타인이해·함께하기·단주하기·미래설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상자의 사고와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RNR(위협성·욕구·반응성) 모델과 CBT(인지행동치료) 모델을 기반으로 구성된 100시간(3개월) 과정을 운영하였다. 연도별 수료인원은 2017년부터 2023년 6월까지 88명이며 2023년 8월 기준 교육 대상인원은 57명이지만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관련 통계가 정비되어 교정시설 내 이상동기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확인된 1) 치료프로그램 의무적 시행의 한계, 2) 프로그램 내용의 현행화 필요, 3) 잠재적 동기 없는 범죄자 관리 미흡, 4)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 체계 미비, 5) 심리치료 전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이상동기범죄자를 관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진단 후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상동기 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리뉴얼하여 ‘(가칭)자기통제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상동기범죄자로 지정된 수용자 외에도 폭력성향이 강한 잠재



적 위험군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담기관 및 부서에 심리치료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의 원인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교정기관 내 이상동기범죄자의 관리와 사회 내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이상동기 범죄의 정의

이상동기 범죄는 최근까지도 ‘문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늘어나는 범죄 유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통일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범행이 비상식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문지마 범죄로 정의하였다(김진혁, 2012).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비상식적이며, 범행 대상에 있어 인과관계가 없는 범죄행위’로 정의하였다(박지선, 최낙범, 2013).

다양한 선행연구자들이 문지마 범죄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왔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상동기 범죄를 무동기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경우도 있다(문혜민, 조은경, 2022).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정의한 연구(안상원, 2020)도 있었으며,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공통점을 기반으로 문지마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으로 비면식 관계의 불특정인, 불분명한 동기, 폭력행사를 제시하였다(윤정숙, 김민지, 2013). 이와 같이 용어에서도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개념 정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찰청은 2022년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공식화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에서 ‘이상(abnormality)’이란 심리학적 용어로 정상(normality)과 구별하여 문화적 규범으로부터 이탈, 통계 기준으로부터 이탈, 및 주관적 불편감의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다. 대검찰청(2015)은 “문지마 범죄를 불특정 대상에게 가해지는 폭행, 손괴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즉 살인, 상해, 방화, 협박, 손괴 등”으로 규정하였다.

### 2.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과 특징

대검찰청(2023a)은 이상동기 중대 강력 범죄자 129명의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 유형은 “상해, 폭행(105건, 81.4%), 살인, 살인미수(16건, 12.4%), 특수협박(3건,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버림받음, 무관심 등으로 인한 좌절, 무기력, 욕구불만이 있다. 둘째, 이상동기 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타인과 관계 맺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동기가 비합리적이다. 다섯째, 피해자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작위적이다. 여섯째, 발생 장소가 다중이 군집하는 곳이다(하성미, 2013).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유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수정, 이현성, 이정현(2013)은 범죄자 1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전과기록,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대상자들에게 지능검사, 인지 신경 심리검사, 성격검사, 사이코패스 검사, 재범위험성 평가, 알코올 의존증 평가와 같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범죄경력, 생활양식,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정신장애형, 외톨이형, 반사회성 유형으로 구분한 연구가 있다. 정신장애형의 특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인지기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고, 관계 망상적 사고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로 확인되었다. 외톨이형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잘 되지 못하는 형태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한두 사람에게 집착을 보이는 경향으로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던 경우로 확인되었다. 반사회적 유형은 또래와의 관계는 원만하나, 교육 성과가 낮은 편이며, 비정규직으로 경계선 수준의 지능, 전두엽 집행기능 상 문제가 있어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a; 12).

윤정숙, 임하늘, 김지연(2013)은 2012년 대검찰청의 이상동기 범죄 관련 수사 재판 기록 56건을 분석하여 현실불만형, 정신장애형, 만성분노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현실불만형은 범죄 동기가 사회에 대한 불만, 자신의 처지 비판 등으로 우울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실불만형은 대인관계 기피 혹은 고립된 생활과 같은 특성을 보였다. 정신장애형의 범죄자들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환각물질 흡입 후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장애형은 인지 및 사고기능과 관련하여 망상, 환각, 와해된 사고 등의 특징을 보였다. 만성분노형은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인지하여 분풀이 또는 단순한 재미로 행해진 경우가 많았으며, 주취 폭력과 상습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별



빈도는 만성분노형(45.8%), 정신장애형(37.5%) 및 현실불만형(16.7%) 순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a; 14).

개인적 특성, 사회적 특성 및 범죄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사건에 부합하는 289건의 사건을 분류한 결과, 이상동기 범죄는 화풀이에 의한 범죄, 이유 없는 범죄, 정신병에 의한 범죄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화풀이에 의한 범죄는 부모와의 말다툼, 이혼 등 가정불화가 주된 원인으로 경제 능력이 없는 범죄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유 없는 범죄는 별다른 특성이 없는 경우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조현병에 의한 범죄로 분석되었다(안상원, 2021).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개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여 대량 살인으로 이어지며, 분노, 증오, 복수심에 대한 표출(Fox & Levin, 2003), 가해자의 지위나 자존심에 대한 위협(Harrison & Bowers, 2010), 총기난사범의 경우 며칠 또는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Aitken, Oosthuizen, Emsley, & Seedat, 2008; Fox & Levin, 2022; 대검찰청, 2023a 재인용: 16-33). 대량살인 범죄로 나타나며, 일본의 토리마 범죄 또는 무차별 살상 범죄는 동기의 비합리성, 피해자 선택의 임의성, 범행도구 등 계획성, 공개적인 범행의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Amoktaten(아목타튼)’으로 불리는 이상동기 살인은 심한 사회적 수치심으로 길에 있는 모든 대상에게 가해지는 파괴행위(Nonis, 2021; 대검찰청, 2023a 재인용; 16-33)로 Amok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 3.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원인

이상동기 범죄의 발생 원인은 개인적 원인, 가정적 원인, 심리사회적 원인 및 정신병적 원인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1) 개인 및 가정적 원인

이상동기 범죄의 개인적 원인은 선천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 두뇌의 감정 체계의 특성 연구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뇌 기능이 인간 행동에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경험적 연구와 범죄자의 뇌 구조와 기능 이상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력적인 범죄의 근원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적 요인은 어린 시절의 질병, 신체 혹은 성폭력의 피해 경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등은 잠재적으로 쌓여있던 분노를 극단적인 상황에서 증오와 자기혐오를 느끼게 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공격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어린 시절 적절한 양육과 불안정한 애착 관계는 사회성과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Williams & Zadro(2001)는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할 경우 공격성을 표출한다고 보았다. 안정된 애착은 타인과 관계를 확장시킨다.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하는 경험은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Leary, Twenge, & Quinlivan, 2006) 등이 있다.

#### (2) 심리사회적 원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중산층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의 양극화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불안과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위험한 일이다. 범죄자들의 사회적 불만 표출이라는 범행동기로써의 변명을 만들어 내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편견과 차별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게 되는 데, 최근 들어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불만의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중매체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하성미, 2013).

반사회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에게 의한 범죄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회피하려는 심리적 부작용 상태에서 발생하며(이옥형, 2009), 분노에 대한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범죄는 타인의 정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Blair, 2004). 망상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Bartol, 2007), 사회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나타나는 범죄(윤정숙, 김민지, 2013) 등은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범죄로 볼 수 있다(안상원, 2021).



(3) 정신병적 원인

주로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본드 등의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해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이다. 이들은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과 치료 경험 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인관계 차원에서 보면 친밀감이 결핍된 경우가 많고 인지 및 지각, 사고기능과 관련하여 망상이나 환각, 와해된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 조현병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범죄와 관련하여 조현병력을 가진 사람은 범죄 행동을 저지를 위험이 크고, 폭력성이 높으며 약물 사용을 한 사람이 범죄 행동과 관련성이 높다(Murran, Khalifa, & Gibbon, 2009)고 하였다. 정신장애 범죄의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16% 정도라는 연구(Estroff, Swanson, Lachiotte, & Bolduc, 1998)와 정신장애 범죄의 경우에도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이양훈, 2011)는 연구 등이 있다. 또한 정신병적 이상동기 범죄는 과각성 상태에서 무차별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선영, 2012). 정신장애는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이상동기 범죄자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고 보았다(함혜연, 2006).

(4)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개념화와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2021년까지 용어에 대한 정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통계적으로 관리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2022년 경찰청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문지마 범죄’, ‘증오범죄’, ‘무차별 범죄’ 등의 용어를 ‘이상동기 범죄’로 공식화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 8년간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이상동기 범죄 선행연구

| 연구자(년도)                  | 연구 주제                                                         |
|--------------------------|---------------------------------------------------------------|
| 권일용(2017)                | 비정상 잔혹 범죄와 범죄자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
| 윤선영, 김나란, 임은지, 이수정(2017) | 문지마 범죄자의 심리특성과 피해의식                                           |
| 이규호(2017)                | 문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
| 김민정(2017)                | 문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지식권력의 혐오 생산                                  |
| 윤정숙, 김재현, 박은영(2017)      |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 이영섭, 박지선 (2017)          | 현실불만형 문지마 범죄에 대한 고찰                                           |
| 윤선영, 이수정 (2018)          | 문지마 범죄자의 유형화 분석 연구                                            |
| 이수정(2018)                | 문지마 범죄자들의 특성과 적절한 처우 집행을 위한 제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중적 인식을 중심으로      |
| 안상원, 김주찬 (2018)          | 이상동기 범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
| 김한중, 강동욱 (2019)          | 정신질환자에 의한 문지마 범죄의 실태와 대책방안: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일선 경찰관의 관점에서 |
| 윤정숙, 박은영 (2019)          | 문지마 범죄자의 유형별 치료적 개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 이은영, 최순실 (2019)          | 한국형 분노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 안상원(2019)                |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
| 안상원(2020)                |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
| 안상원(2021)                |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과 성향 분석                                         |
| 문혜민, 조은경 (2022)          | 한국에서 문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
| 윤상연, 백승경, 허태균(2023)      | 문지마 범죄의 학문적 재정립: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및 통계적 관리방안                      |
| 김영숙, 조영오 (2024)          | 이상동기 범죄의 최근 실태 및 하위유형 분류                                      |
| 노성훈(2024)                | 불특정 대상 폭력에 대한 긴장 요인 중심의 범죄사회학적 해석과 예방대책                       |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비정상 범죄, 잔혹 범죄, 비정상 잔혹 범죄로 유형을 구분한 연구(권일용, 2018), 통계적으로 범죄의 발생 추이를 파악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범죄자의 특성을 정신장애, 반사회성, 및 피해의식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윤선영, 김나란, 임은지, 이수정, 2017). 또한 이상동기 범죄를 심리학적 원인으로 분석하고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및 정신장애형으로 유형을 나누어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이규호, 2017). 이상동기 범죄 또는 현상을 실체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둔 연구(김민정, 2017)와 이상동기 범죄의 치료적 개입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윤정숙, 김재현, 박은영, 2017)를 진행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 분석 및 유형화 연구(이영섭, 박지선, 2017), 이상동기 범죄자들의 범죄심리학적 특성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 유사한 유형들로 유형화한 연구(윤선영, 이수정, 2018)들이 있다.

이수정(2018)은 범죄 행태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법원이 판단한 시점부터 판결문을 분석하여 개념, 특성, 원인, 유형을 구분하고, 이상동기 범죄의 행동특성을 분석하였다(안상원, 김주찬, 2018).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통계, 정신질환자들의 입원 현황을 알아보고,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 중 조현병 환자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복지법 중 입원제도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김한중, 강동욱, 2019).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적절한 치료적 개입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치료적 함의를 제안한 연구(윤정숙, 박은영, 2019), 분노범죄의 정확한 개념과 범주를 설정하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한 연구(이은영, 최순실, 2019) 등이 있다.

안상원(2019, 2020)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상동기 범죄를 다룬 20개의 국내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을 범죄의 유형과 측정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문혜민, 조은경, 2022). 윤상연, 백승경, 허태균(2023)은 문지마 범죄 용어의 대안으로 이상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라는 위계적 체계 및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 최근 4년간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이상동기 범죄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잠재 계층분석을 통해 복수의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이 존재하는 지를 검증한 연구(김영숙, 조영오, 2024)와 심리학적 프레임에 경도된 문지마 범죄 담론의 한계 비판 및 범죄사회학 이론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석(노성훈, 2024)한 연구 등이 있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 발생원인, 유형과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문헌과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은 윤정숙, 임하늘, 김지연 연구자가 수사재판기록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작성한 대검찰청(2023a)의 연구보고서 자료에서 연구주제에 필요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의 상황 특성, 범죄 동기, 세부 유형별 특성 및 유형별 주요 범행동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들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자료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V. 연구 결과

### 1. 이상동기 범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윤정숙, 임지연, 이하늘 연구자가 수사 재판기록을 통해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무직이 53.5%,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이 26.4%로 두 유형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연령은 50대가 전체의 25.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4.8%, 20대가 19.4%, 40대가 17.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와 관련하여 미혼이 52.7%, 이혼, 사별, 별거가 21.7%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0.3%,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19.4%, 중학교 졸업이 18.6%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경력 유무에서는 전과가 있는경우가 79.8%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과 횟수에 있어서 1~5건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대검찰청, 2023a: 46-49).



〈표 2〉 이상동기 범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29

| 특성    | 유형          | 빈도(%)     |
|-------|-------------|-----------|
| 성별    | 남           | 121(93.8) |
|       | 여           | 7(5.4)    |
| 직업    | 무직          | 69(53.5)  |
|       |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 | 34(26.4)  |
| 연령    | 20대         | 25(19.4)  |
|       | 30대         | 32(24.8)  |
|       | 40대         | 22(17.1)  |
|       | 50대         | 33(25.6)  |
| 결혼 유무 | 미혼          | 68(52.7)  |
|       | 이혼, 별거, 사별  | 28(21.7)  |
| 최종 학력 | 중졸          | 24(18.6)  |
|       | 고졸          | 52(40.3)  |
|       | 대재 혹은 대졸    | 25(19.4)  |
| 전과 경력 | 있음          | 103(79.8) |
|       | 없음          | 26(20.2)  |

출처: 대검찰청(2023a)

2.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윤정숙, 임지연, 이하늘 연구자가 수사 재판기록을 분석하여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상동기 범죄자의 음주 유무에서 음주 상태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각물질과 같은 약물 사용 여부에서 약물 사용은 0.8%,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48.1%,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51.2%로 나타났다. 범행 후 행동은 범행 후 도주가 52.7%, 그냥 현장에 있음이 27.9%, 저항이 24.8%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는 48.8%는 협조적이었으며, 46.5%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에서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가 34.1%로 나타났으며, 혐의 사실 중 일부만 인정한 경우가 47.3%, 혐의 사실 전면 부인은 16.3%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a: 50-51).

〈표 3〉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n=129

| 사건 특성          | 세부사항          | 빈도(%)    |
|----------------|---------------|----------|
| 음주 유무          | 있음            | 86(66.7) |
|                | 없음            | 24(18.6) |
| 약물(환각물질) 사용 유무 | 있음            | 1(0.8)   |
|                | 없음            | 62(48.1) |
| 범행 후 행동        | 미확인           | 66(51.2) |
|                | 그냥 현장에 머물     | 36(27.9) |
|                | 도주            | 68(52.7) |
|                | (경찰 체포 등에) 저항 | 32(24.8) |
| 수사단계에서 보인 태도   | 협조적           | 63(48.8) |
|                | 비협조적          | 60(46.5) |
| 혐의사실 인정 여부     | 전부인정          | 44(34.1) |
|                | 일부인정          | 61(47.3) |
|                | 전부부인          | 21(16.3) |

출처: 대검찰청(2023a)

3. 이상동기 범죄의 범행 동기

윤정숙, 임지연, 이하늘 연구자가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의 핵심동기라고 볼 수 있는 범행동기의 특성은 정신과적 문제(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는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는 22.5%, 피해자가 자신을 찔러보거나, 시비를 걸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0.1%, 현실비관 및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9.3%인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a: 51-52).

〈표 4〉 이상동기 범죄의 범행동기

n=129

| 범행동기                      | 빈도       |
|---------------------------|----------|
| 정신과적 문제(환청, 환각, 환시, 망상 등) | 38(29.5) |
| 쌓인 분노 표출(분노를 타인에게 전가)     | 31(24.0) |
| 주취 상태에서 이유 없이             | 29(22.5) |
|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 13(10.1) |
| 현실 비관, 처지에 대한 불만          | 12(9.3)  |

출처: 대검찰청(2023a)



#### 4.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원인분석

본 연구의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가장 최근에 유형을 분류한 만성분노형, 정신질환형, 현실불만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윤정숙, 김민지, 2013). 복수 응답으로 조사한 1순위, 2순위, 3순위 별 주요 범행동기 분류 결과, 1순위는 만성분노형(59.7%), 정신질환형(28.7%), 현실불만형(11.6%)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a: 69).

〈표 5〉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별 분포

n=129

| 순위  | 유형    | 빈도 | 비율(%) |
|-----|-------|----|-------|
| 1순위 | 만성분노형 | 77 | 59.7  |
|     | 정신질환형 | 37 | 28.7  |
|     | 현실불만형 | 15 | 11.6  |

출처: 대검찰청(2023a)

유형별로 주요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만성분노형의 경우 쌓여진 분노 표출, 주취 상태에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형의 주요 범행동기는 정신과적 문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실불만형은 현실 비판, 처지에 대한 불만, 주취상태에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순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23a: 76-78).

〈표 6〉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별 주요 범행 동기

| 유형          | 범행 동기           | 빈도(%)     |
|-------------|-----------------|-----------|
| 만성분노형(n=77) | 쌓여진 분노 표출       | 31(40.3)  |
|             | 주취상태에서 이유 없이    | 26(33.8)  |
|             |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 11(14.3)  |
|             | 기타              | 7(11.7)   |
| 정신질환형(n=37) | 정신과적 문제         | 37(100.0) |
| 현실불만형(n=15) | 현실비판, 처지에 대한 불만 | 10(66.7)  |
|             | 주취상태에서 이유 없이    | 3(20.0)   |
|             |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 2(13.3)   |

출처: 대검찰청(2023a)

#### 5.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방안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범죄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및 보호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특히 수형자의 경우에는 교정시설 등 사회 내에서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소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치료 및 교육 등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안상원, 김주찬, 2018).

대검찰청(2023a)은 현실불만형의 경우 첫째는 사회적 고립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둘째는 지역사회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잠재적 폭력행동 발굴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만성분노형의 경우, 첫째는 재범의 경우가 많으므로 만기 출소자를 포함한 경찰의 우범자 관리를 위한 제도정비 및 전략강화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지금까지 형사사법기관 간의 정보공유 기능이 미흡하여 출소한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험 군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기관 간의 정보공유 강화 및 협력을 통한 통합적으로 범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는 만성적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자 수감(이수)명령 신설 및 집행을 통한 범죄유발요인 개선이다(윤정숙, 김재현, 박은영, 2017). 정신질환형의 경우 첫째는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으면 정신과 전문의가 전문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 치료 감정과 종합적인 심리평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시설 내에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성공적 치료, 재범의 위험성 감소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 혹은 퇴소 후의 사후 관리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치료감호법상 구금치료명령의 활성화 및 사후치료 연계이다. 셋째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치료적 처우에는 대상자 관리를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치료감호법상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다. 넷째는 정신질환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취약성으로 인해 자해나 타해의 위험을 보이거나 폭력성이 발현될 경우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전문가적 개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정신보건법상 비자발적 입원명령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자 중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범행동기이므로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대검찰청, 2023a : 157-175).

윤상연, 백승경, 허태균(2023)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배제 경험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실불만, 만성분노,



정신질환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상동기 범죄자의 특성 및 발생 과정을 고려한 예방대책 및 재범방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에 의한 경우는 정신질환자 관리 정책, 마약 등 물질에 의한 경우는 마약과 중독 관리 정책에 의해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적 분노에 의한 경우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본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고,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과 범죄 유형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상동기 범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90% 이상이 남성으로 전체 범죄자 중 여성범죄자의 비율이 2022년 21.1%인 것(대검찰청, 2023a)을 고려하면 10% 이상 남성 비율이 높고 무직, 일용직 혹은 비정규직이 81.9%이고 미혼 또는 이혼, 사별, 별거가 74.4%, 고졸 이하가 80.6%, 전과 경력도 79.8%로 2022년 전체 범죄자 중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44.8%인 것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낙인은 전과자들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하여 다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Goffman(1963)의 주장과 일치하며, 대검찰청(2023b)자료에서 직업이나 결혼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범죄와 비교하여도 이상동기 범죄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학력이 낮으며 대인관계에서의 안정감도 낮을 것으로 보이며 전과 경력도 전체 범죄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범죄 예방 또는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과 경력에 있는 자 중 해당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을 보면 음주상태에서의 범죄가 66.7%로 높으나 약물(환각물질) 사용은 0.8%만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약물사용과 이상동기 범죄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이상동기 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등 개입 시 음주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동기 범죄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망상과 환각 등 조현병 증상을 포함한 정신과적 문제가 29.5%로 가장 높고 쌓인 분노 표출이 24.0%, 주취상태에서 이유없이 22.5%,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이 10.1%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동기범죄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나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와 같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망상, 환각 등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 Fazel et. al. (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뚜렷한 정신과적 문제 외 언급된 범행동기도 성격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법적 처벌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심리적, 성격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별로 보면 만성분노형이 59.7% 가장 높고 정신질환형이 28.7%, 현실불만형이 11.6%로 가장 낮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회적 지위도 낮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직업도 없이 안정적인 가정도 갖지 못한 전과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이나 열등감을 느낄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Goffman(1963)의 연구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경제적 압박을 더 받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절망감이나 분노를 유발하게 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Fazel et al.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학대나 방임 속에서 성장하고 제대로 된 교육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현실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상동기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질환형도 취약성을 가진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이나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발병하고 재발을 반복하게 되고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이 부분적인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국가적인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제언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동기 범죄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업무협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22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명칭을 사용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상동기 범죄가 약 80%가 전과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정보를 공유하여 대상자를 특정하고 집중관리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성분노형과 현실불만형이 70% 이상으로 그들의 불만과 분노의 이유를 찾고 근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삶을 살았고 교육-의료 등 복지 혜택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여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들의 삶을 되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처벌과 사회적 격리가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이상동기 범죄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관련 범죄가 증가할 위험이 매우 크고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출소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인 “Yellow Ribbon Project”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자에게 직업훈련과 정신, 심리적인 치료적 개입과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교정기관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충분한 개입을 시행하고 출소 후 직업과 주거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하겠다. 또한 범죄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 아니라 사회적 책임임을 인정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잘못을 반성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한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언론홍보나 연구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기관의 재범방지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동기 범죄에서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매우 높고 전과가 없는 범죄자도 결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데 수용 중 적절한 재범방지를 위한 개입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과밀수용이 위헌(2013헌마142, 2016. 12. 29.)이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크게 변한 것이 없고, 2016년 법무부 심리치료과가 설치되는 등 심리적 개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법무부 소속 교정 본부로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개입에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처벌을 위해 사회에서 격리한다고 하여 재범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어 교정기관이 재범방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정청으로 독립시켜 재범하지 않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출소 후 재범위험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이상동기 범죄자를 포함한 재범 고위험군의 범죄자는 사회로 돌아가더라도 가족이나 지역 사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범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법무부에서 성범죄자 중 고지 및 전자발찌 대상자, 마약 등 중독 관련 범죄자 중 고위험자,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출소 후 보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을 알선하며 치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관련법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만들고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그 외에도 많은 제안을 할 수 있겠으나 이 모든 것들은 범죄가 개인의 일탈이나 성격, 정신적인 문제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사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들이 재범하지 않는 건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국가정책연구기관에서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그 근거를 제공하고 범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공동체 생활을 일정 정도의 범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전과는 다른 유형의 범죄이며 이는 단순한 처벌이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재범방지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은 관련범죄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 관련 사건들을 경험한 일본이나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지 않도록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모두에게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낸다면 지금이 개입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고선영, (2012),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1권, 제4호, pp.3-28, 한국경찰연구학회.

권일용, (2018), 비정상 잔혹 범죄와 범죄자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영숙/조영오, (2024), 이상동기 범죄의 최근 실태 및 하위유형 분류, 경찰학연구, pp.93-122, 경찰대학 경찰대학.

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8권, 제3호, pp.113-131, 한국범죄심리학회.

노성훈, (2024), 불특정 대상 폭력에 대한 긴장 요인 중심의 범죄사회학적 해석과 예방대책,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pp.135-165, 한국형사정책학회.

대검찰청, (2016), 묻지마 범죄 분석 및 대책 III: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a, (2023),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분석,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b, (2023),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문혜민/조은경, (2022), '묻지마 범죄'의 개념적 실체에 관한 소고, 한국범죄학, 제16권, 제1호, pp.143-165, 대한범죄학회.

박지선/최낙범, (2013), 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 제4권, 제3호, PP.107-124, 한국심리학회.

안상원, (2019),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술대회, 제2호, pp.21-44,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_\_\_\_\_, (2020),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2호, pp.177-199,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_\_\_\_\_, (2021),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고찰 및 성향 분석,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2호, pp.101-127,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_\_\_\_\_/김주찬, (2018), 이상동기 범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8권, 제3호, pp.1-29, 한국중독범죄학회.

윤상연/백승경/허태균, (2023), 묻지마 범죄의 학문적 재정립: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화 및 통계적 관리방안, 한국범죄학, 제17권, 제3호, pp.83-100, 대한범죄학회.

윤선영/김나란/임은지/이수정, (2017), 묻지마 범죄자의 심리특성과 피해의식, 한국범죄학, 제11권, 제2호, pp.29-65, 대한범죄학회.

윤정숙, (2023), 이상동기 범죄의 유형과 대책, \_\_\_\_\_/김민지,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제9권, 제1호, pp.147-174, 한국범죄심리학회.

\_\_\_\_\_/김재현/박은영, (2017),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1-224.

\_\_\_\_\_/임하늘/김지연, (2023),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분석,

이규호, (2017), 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67권, 제1호, 법학연구, pp.207-225, 한국법학회.

이상철, (2023), '이상동기 범죄' 신속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법신논단.

이수정, 이현성, 이정현, (2013),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심리학적 하위유형 연구, 보호관찰, 제13권, 제2호, pp.136-186, 보호관찰학회.

이양훈, (2011), 정신장애범죄 실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개선방안 연구, 교정복지학회, 제21호, pp.153-175, 한국교정복지학회.

이옥형, (2009), 대학생의 성별, 학년, 전공에 따른 반사회성과 학업부정행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8호, 1-25, 한국청소년학회.

이은영, 최순실, (2019), 한국형 분노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9호, pp.29-54, 한국교정복지학회.

정지혜, (2024), 세계일보, 경찰 :2024년 2월 6일자: 2023년 이상동기 범죄 총 44건, 세계일보.

하성미, (2013), 무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대응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함혜연, (2006), 이상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형사사법적 고찰: 판결전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2권, 제1호, pp.247-277, 한국범죄심리학회.

■ 외국문헌

Aitken, L., Oosthuizen, P., Emsley, R., & Seedat, S., (2008), Mass murder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38(3), pp.261-269.

Bartol, C. R., (2007), Criminal behavior: A psychosocial approach(8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Blair, R. J. R., (2004), The roles of orbital frontal cortex in the modulation of antisocial behavior, Brain Cognition, 55, pp.198-208.

Estroff, E., Swanson, W., Lachiotte, W., Swartz, M., & Bolduc, M., (1998), Risk considered: Targets of violence in the social networks of people with serious psychiatric disorder, Social Psychiatry of Psychiatric Epidemiology, 33, PP.95-101.

Fox, J. A., & Levin, J., (2003), "Mass Murder", Erick Hickey(ed.) Encyclopedia of Murder & Violent Crime, Sage Publications.

\_\_\_\_\_, (2022), Mass murder in America: Trends, characteristics, explanations, and policy response, Homicide Studies, pp.26(1), 27-46.

Fazel, S., Gulati, G., Linsell, L., Geddes, J. R., & Grann, M., (2009). Schizophrenia and violenc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Medicine, 6(8): e1000120.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120>.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Jersey: Prentice-Hall.

Harrison, M. A., & Bowers, T. G., (2010), Autogenic massacre as a maladaptive response to status threat,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 Psychology, 21(6), pp.916-932.

Leary, M., Twenge, J.,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pp.111-132.

Mc Murran, M., Khalif, N., & Gibbon, S., (2009), Forensic mental health, Cullompton, Devon: Wil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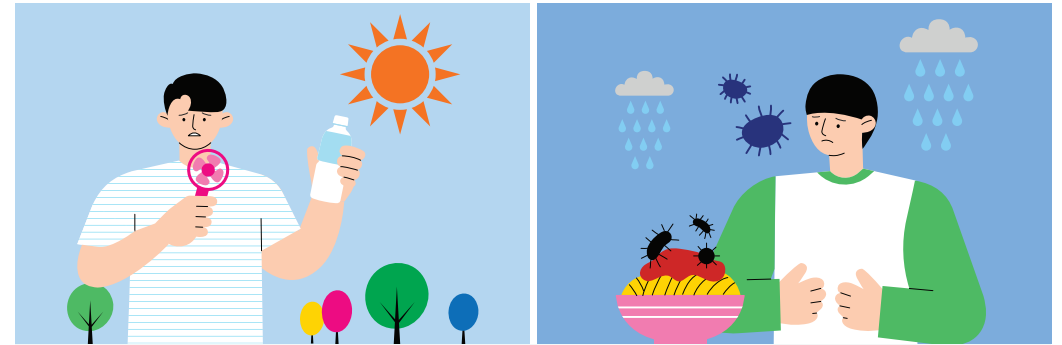
Williams, K. D., & Zadro, L., (2001), Ostracism: On being ignored, excluded, and rejected, In M. R. Leary(ed), Interpersonal rejection, pp.21-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심리치료 프로그램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7.3.(목) ~ 7.4.(금), 롯데리조트 부여
- 참 석 자** 보안정책단장, 심리치료과장, 프로그램 담당자 등 60여 명
- 주요 내용**
- 강력범죄 심리치료 대상자 특성 교육 및 치료적 개입
  - 심리치료과 주요 정책 및 현안 공유
  - 업무 담당자 소진 관리 프로그램 실시 등

## 집중호우 시기 식중독 예방 재강조 지시



- 주요 내용** 고온다습한 집중호우 시기에 식재료 및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수인성 질환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재강조 지시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정기총회



- 일시·장소** 7.15.(화) 16:00, 라마다호텔(인천 연수구)
- 참 석 자** 교정본부 : 교정정책단장, 사회복귀과장 등 5명  
교정위원 : 중앙협의회장 김학술 등 100여 명
- 주요 내용**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정기총회
  - 회장 등 주요 임원 이취임식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실장, 교정기관 방문



- 일시·장소** 7.29.(화) 14:00, 대전(교)
- 참 석 자** 국가보훈부 : 보훈문화정책실장 등  
교정본부 : 보안정책단장, 대전지방교정청장 등
- 주요 내용** 기관현황 설명 및 시설 참관 등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 전 직원 대상 청렴릴레이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7월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 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및 갑질 예방 등을 다뤘으며, 직원들은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정행정 구현'과 '믿음을 주는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 일본대사관 대상 참관행사 진행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7월 15일 일본 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주한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번 참관은 '한일간 교정시설 운영 방식 비교 연구'에 협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 ‘과밀수용 해소’ 위한 논의 진행

인천구치소는 지난 7월 16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교정시설이 직면해 있는 과밀수용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회의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정시설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됐다.

###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 신규 및 전입직원 신고식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7월 21일 신규 및 2025년 하반기 정기 전보 전입 직원 신고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경선 소장은 전입 직원을 환영하며, "신규 직원의 업무 적응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 교정협의회로부터 '사랑의 생수' 기증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7월 11일 교정협의회에서 마련한 '사랑의 생수' 4만 병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 여느 해보다 강한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성사된 이번 기부는 수용자들에게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

###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 2025년 상반기 정기 퇴임식 가저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7월 9일 2025년도 상반기 정기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은 정년을 맞은 김준희 교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재직기념패 전달, 꽃다발 및 기념 케이크 증정, 직원 대표 송사, 퇴직 직원 감사 순으로 진행됐다.



###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 INCCIP 참가자 대상 참관 진행

여주교도소는 지난 7월 4일 제4회 수용자 자녀 국제학술대회(2025 INCCIP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서울에서 개최된 INCCIP의 부대행사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참가자 29명이 가족접견실 등의 시설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 교정협의회에서 생수 기부발아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7월 1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용 생수 3,200개를 기부받았다. 이번에 기부된 생수는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배부될 예정으로,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한 수용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 신규 직원 6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은 계급장 수여, 임명장 전수, 꽃다발 증정 및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기주 소장은 이날 신규 직원들을 환영하며 "헌법을 준수하면서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 ‘장애인식 개선’ 위한 교육 진행

원주교도소는 지난 7월 10일 전 직원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

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외부강사 초빙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사례 등을 다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태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진행

강릉교도소는 지난 7월 14~17일, 22일 총 4일간 법무보호복지공단 최혜정 외부 강사를 초빙,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출소예정자에게 취업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제공했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안내했다.

###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 2025년 순회점검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 7월 22일 화재 등 복합재난훈련 및 교정장비 사용훈련을 위한 순회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소방 및 교정장비 등 사용법을 재숙지하면서 화재·난동·지진 등 상황별 대처능력을 한층 더 확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이수영

#### ‘감사 나눔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7월 22일 법무부 교정정책 자문위원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감사 나눔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감사쓰기 공모전 심사평 및 수상자 소감문 발표도 진행됐다.

###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손운근

#### 교정협의회 생수 기부식 가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7월 17일 평택·안성 교정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수 기부 행사를 가졌다. 정상필 지소장은 이날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를 기부해 주신 평택·안성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더위로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소망교도소 | 주임교도관 박성호

#### 간미연·황바울 부부 홍보대사 위촉

소망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가수 간미연 씨와 뮤지컬 배우 황바울 씨 부부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간미연 씨는 이날 "소망교도소의 문화행사에 여러 차례 참여하며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달라졌다"면서 "수용자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소망교도소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7월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고,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 지역 어린이 그림대회 및 전시회 개최

대구교도소는 최근 대구하빈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시설 내에 전시했다. 이번 그림 그리기 대회는 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획됐으며, 접수된 총 82점의 작품 중 29명의 작품이 수상에 올랐다.

###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 여성 수용자 미용봉사단에 감사장 전달

부산구치소는 지난 7월 22일,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하는 '신화남나눔봉사단'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화남나눔봉사단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매월 마지막 화요일 부산구치소를 방문, 여상 수용자에게 미용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최송락

#### 사진전 통해 국립공원 관람 기회 제공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7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 작품을 전시, 교정기관 직원들과 수용자들이 국립공원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업무협약(MOU)을 맺은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의 협업으로 마련됐다.

###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기증받아

창원교도소는 지난 7월 8일 교정협의회로부터 혹서기 대비를 위한 생수 2만 병을 기증받았다. 기증된 생수는 냉동보관 후 시원한 얼음냉수 형태로 수용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이는 무더운 여름철 폭염으로 지친 수용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 교정협의회 초청 시설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는 지난 7월 교정협의회를 초청, 참관 행사를 진행

했다. 이번 참관은 선진화된 교정시설과 변화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 민원실 내 미술작품 전시

포항교도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교도소 민원실 내에 '해오름 갤러리'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아트코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비밀의 화원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 교정협의회서 생수 3만 병 기증

진주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30,000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정협의회는 이로써 수용자들에게 향한 따뜻한 응원과 배려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다.

### 대구구치소 | 교사 박재원

#### 2025년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구치소는 지난 6월 26일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수용자들의 마약재범 방지를 위한 '2025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범죄의 급속한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 소장 직무대행으로 김태훈 서기관 취임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7월 1일 김태훈 서기관을 소장 직무대행으로 맞았다.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김 소장은 부산교도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창원교도소 출정과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지냈다.

###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 복합 재난 대응 훈련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 7월 7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가정, 수용자 긴급대피 및 화재 진압 훈련을 실시했다. 보안과장 등 약 40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지진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 수용자의 안전 확보와 행동 매뉴얼 숙지를 목표로 진행됐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황인옥

#### 지역사회 내 진보중에 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7월 4일 청송군 진보면에 소재한 진보중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인 이번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현

#### 지역 청소년에 '사랑의 장학금' 전달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7월 16일 교도소 인근의 문성중학교에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학교 측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총 8명에게 수여됐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2010년부터 1년에 2회씩 해당중학교에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 신규 임용된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식은 신규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축하하고,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다질 수 있도록 복돋는 자리가 됐다.



### 울산구치소 | 교사 박준규

#### 무더위 대비 위한 생수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는 지난 7월 14일 보덕사 효암스님과 울산불교여성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것으로, 기증된 생수는 냉동고에 보관한 후 무더운 날씨에 맞춰 지급될 예정이다.



### 경주교도소 | 교위 허준병

####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전달 받아

경주교도소는 지난 7월 1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지원을 위한 생수 5,000병을 전달받았다. 이날 생수를 전달한 김태호 위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시원한 생수가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 통제영 로타리클럽서 혹서기 물품 지원 받아

통영구치소는 지난 7월 10일 통제영 로타리클럽으로부터 혹서기 수용자 지원을 위한 생수 5,000병과 아이스크림 650개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 청렴 릴레이 2차 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지난 7월 10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릴레이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 직원들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및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행을 조심하고 청렴한 태도를 견지할 것을 다짐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관할 군부대 참관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7월 7일 상주지역 관할 군부대인 제120보병여단의 여단장 등 6명의 방문을 받았다. 이번 방문은 방호업무 협의를 위해 성사됐으며, 참석자들은 이날 교도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전 직원 대상 체포·제압술 훈련 실시**

거창구치소는 지난 7월 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포·제압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용자 계호 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체력 증진과 신체 안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용 질서 확립'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땀고자 마린, 혈액·시력·혈압 등 기본 체크와 야간근무자 특수 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전입 및 신규 직원 환영 행사 진행**

홍성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 전입직원 7명, 신규직원 3명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모는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으며, 신규직원들을 축하하고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구자호****하절기 식중독 예방 자체점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직원식당과 수용자 취사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를 위해 편성된 자체 점검반은 식중독균 검사, 보존식·부식재료 관리, 위생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진정민****전입 및 신규 임용식 열어**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7월 21일 전입 및 신규 임용식을 열었다. 이날 최장문 소장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전용배****교정직 9급 공채 신규 임용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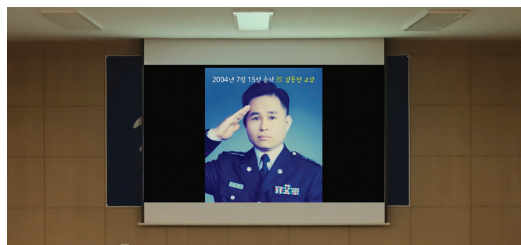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7월 21일 교도시보 김승현 등 4명에 대한 신규임용식을 개최했다. 소장과 보안교정관 등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날 임용식에서는 임명장 수여 및 격려를 전달이 있었다. 김승현 교도시보는 "열심히 배우고 경험하며 논산지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교정청****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전 직원 대상 인권강화교육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7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외부 강사 초빙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형의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故 김동민 교감 순직 21주기 추모**

대전교도소는 지난 7월 15일故 김동민 교감과 25위 순직교도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기술로 재현된故 김 교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상영해 참석한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찾아가는 영화관’으로 <하열빈> 상영**

청주교도소는 지난 7월 한국영상자료원의 지원을 받아 영화 <하열빈>을 상영했다.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수용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상영된 이번 영화관람에는 수용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미 육군 교정사령부 참관 실시**

천안교도소는 7월 21일 미 육군 교정사령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한·미행정협정사건

(SOFA) 수용자의 처우 및 시설 운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양 국가 간 교정행정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의료과, 질병관리청과 면담 진행**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7월 22일 '교정시설 감염병 통합관리 지침' 발간을 위한 질병관리청의 현장 방문을 받았다. 의료과와의 면담을 진행한 이번 방문은 감염병 관련 대응 절차 및 대응 사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간이 됐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2025년 마약예방 캠페인’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 7월 1일 '2025년 마약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거나 마약예방 어깨띠를 착용·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주교도소는 앞으로도 대국민 및 수용자 대상 마약 경각심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전 직원 대상 건강검진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 7월 3일과 4일 서울영등포병원 의료진의 출장 지원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근무특성상 바쁜 일정으로 정기검진을 받기 어려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광주지방교정청****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전은주****서부산림청과 산림경영대행 협약 체결**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7월 22일 서부지방산림청과 '교정기관 산림경영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주변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불 예방 등 교정시설 재난 대응력 고도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교정 체포·제압술 훈련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7월 14일 수용자의 폭행·소란·난동·자해 등 돌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정 체포·제압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맨손 제압술, 상황별 대처 요령, 보안장비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는 지난 7월 8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장 등 직원 13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이번 참관은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함께 건강한 조직 문화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 흑서기 수용자 생수 기증 행사

순천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 Y마트 서순천점과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흑서기 대비 얼음생수를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얼음생수는 기상 상황과 일정에 따라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 무안중에 '사랑나눔 장학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 무안중학교 재학생 5명에게 총 150만 원의 '사랑나눔 장학금'을 전달했다. 해당 장학금은 목포교도소 전 직원의 정성을 모아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매년 2회에 걸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성실한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 군산교도소 | 교사 문준호

###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기증 받아

군산교도소는 지난 7월 3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2,100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된 생수는 흑서기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교도소는 무더운 날씨에 맞춰 각 작업장과 수용동에 생수를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참관 진행

제주교도소는 지난 7월 21일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제주 검찰청 수사관 등 관계자 6명을 대상으로 참관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앞으로 법률 전문가가 될 인재들에게 현대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장흥교도소 | 교도 한지현

###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 7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정공무원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인권국의 실태점검 일정 중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점검반장을 맡은 박정순 검찰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수용자 인권과 현장의 실태'를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했다.

##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 교정협의회서 생수 기부 받아

해남교도소는 지난 7월 1일 해남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5,000병을 기부받았다. 이번 기부는 올해 무더위가 예년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여름철 수용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 이리남중교회 목사 등 관계자 방문

정읍교도소는 지난 7월 17일 이리남중교회의 박춘수 목사 및 관계자 17명이 방문한 가운데 수용자 대상 기독교 집회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신앙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수용자 인권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 됐다.



## 모범 공무원



### 서울남부구치소 | 교감 김도형

김도형 교감은 1996년 임용 이후 30여 년간 교정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정행정의 발전과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헌신해 왔다. 현재는 서울남부구치소 사회복귀과에서 교정협의회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교정위원들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종교 및 교화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기부금품 행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수용자 생활의 질 향상과 시설 내 안정을 위해 힘쓴다.



### 부산구치소 | 교위 김환영

김환영 교위는 지난 6월 15일 14수용동에 수용 중인 수용자가 CCTV 방향을 응시한 채 화장실 문틀에 매달려 턱걸이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했다. 영상 계호를 강화한 김 교위는 약 20분 뒤 다시, 해당 수용자가 속옷 상의를 목에 감고 화장실 문지방 위로 올라가 이를 고정하려는 듯한 위급한 상황을 확인했다. 이에 즉시 거실 문을 열고 수용자를 외부로 유도한 김 교위는 수용관리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 교정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조창훈

조창훈 교도는 지난 6월 23일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6수용동을 방문했다. 당시 해당 수용자의 외부 상태가 매우 불결해 직접 씻겨준 뒤 호실로 돌아가던 중, 갑작스레 의식을 잃은 수용자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맥박이 잡히지 않고 말초 청색증 증상을 보이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조 교도는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바로 응급실로 이송 조치함으로써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 정읍교도소 | 시설주사보 유재춘

복지과에 근무 중인 유재춘 시설주사보는 많은 바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힘썼다. 복지과 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및 기계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산불 예방 및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산림청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예산 절감과 부처 간 협업체계 강화 등으로 업무 효율을 높임으로써 평소 교정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부산교도소 심리치료팀은 입소부터 출소까지  
끊임없는 재활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재범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노력한다.  
마약사범이 집중 수용된 이곳은 어디일까?

힌트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가 전국 교정기관 중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조 정 능 인 오 드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잠도 배워야 한다!"

: 교정공무원을 위한 수면관리 특강

초청강사



서울스페셜수면의원 한진규 원장

- 고려대 신경과 교수 역임, 현 고려대 외래교수
- 대한수면연구회 학술이사, 한국수면학회 이사 등
- 미우새,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방송출연 다수

프로그램 안내

- 참여대상**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교정공무원  
※ 보안현업 교대근무자 우선선발
- 운영방법** 비대면 화상교육(Zoom 활용)
- 대상인원** 160명(80명씩 2차수 운영)  
※ 1, 2차수 같은 교육으로 차수별 중복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5. 08. 18.(월) ~ 08. 29.(금), 2주간
- 선정발표** 2025. 09. 02.(화), 선정자 개별 안내
- 진행** 1차수 : 2025년 9월 23일(화), 19:00~20:30  
2차수 : 2025년 10월 30일(목), 19:00~20:30
- 주요내용** 숙면을 위한 수면위생 관리법, 교대자를 위한 수면 가이드 및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수면 개선 방법 등

프로그램 신청 방법

QR코드 스캔 혹은 마음나래 홈페이지 접속 (www.mauumnarae.co.kr)

회원가입  
로그인

상담/프로그램  
신청 탭

최초 1회  
통합로그인동의

2025 수면특강  
프로그램 신청



▲ 신청 바로가기

관련문의

(주)휴노 마음나래 운영담당자 ☎ 02-6952-2720